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달리고 달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 慶南中高同窓會報

발행인 : 오 거 돈
편집 / 제작 : 경남중고동창회보 편집실
발행처 : 경남중고등학교 본부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O/T 411호
Tel. (051)245-7551~3 / Fax. (051)245-7550

1968년 6월 1일 창간 | www.kyungnam.or.kr | 제 389호 – 2012년 3월 2일 발행

# 모교 교정, 각종 기념조형물로 넘친다

## 학교측 "앞으로는 조형물 대신 학습시설이나 해줬으면..."

## 고 이태석 동문 흉상 세울 '좋은 자리' 찾느라 고심하기도

모교 교정이 각 동기회와 동문 개인이 세운 기념조형물들로 넘쳐나 더 이상 새로운 기념조형물이 들어설 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경동창회(회장 임우근)와 학교 측은 오는 4월30일 모교 개교70주년에 맞춰 건립할 고 이태석 동문(35회, 신부)의 흉상을 세울 마땅한 자리를 찾기 위해 고심한 끝에 교훈비 뒤편 연못가로 정했다. '좋은 자리'는 이미 다른 기념조형물이 들어서 있어서 '차선의 자리'로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월말 현재 모교 교정에 동기회 또는 동문 개인이 세운 기념조형물은 모두 8개. 여기에 고 이태석 동문 흉상이 세워지면 모두 9개로 늘어난다. **<기념조형물 배치현황도 참조>**

학교 측은 "원형교사와 본관, 과학관, 신관이 둘러싸고 있는 학교중심공간에는 이제 더 이상 기념조형물을 세울 마땅한 장소가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동문들이 기념조형물 건립 대신에 재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편의시설 설치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다.

1. 게시판 및 시계탑 (18회 동기회 졸업20주년 기념) / 2. 교훈비 (9회 동기회 졸업50주년 기념) / 3. 청동제 용마상 (14회 동기회 졸업30주년 기념) / 4. 생각하고 창조하세 (6회 동기회 졸업30주년 기념) / 5. 시비 '사랑하는 경남고여!' (26회 박상호 동문) / 6. 고래상 (17회 동기회 졸업20주년 기념) / 7. 초대 안용백 교장흉상 (7회 강주홍 동문) / 8. 교가비 (35회 동기회 졸업기념) / 9. 고 이태석 동문 흉상 (재경동창회 2012년 4월30일 건립예정)

## '2012년판 동창회 회원명부' 발간한다

### 오는 4월30일 모교 개교기념일에 맞춰 총 두 권으로 제작

'2012년판 경남중고동창회 회원명부'가 제작된다.

본부동창회(회장 오거돈)는 모교 개교기념일인 오는 4월 30일 이전에 이 명부를 발간하기로 했다고 지난 2월 7일 밝혔다.

제작될 명부는 전체 동문들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담은 '회원명부'와 '직장 직능 지역별 명부' 등 두 종류다.

이번 회원명부제작은 5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동문들의 그동안 달라진 연락처와 근황 등을 담게 된다. 본부동창회는 회원명부 제작을 위해 각 기별 회장과 국장에게 기별 동문 주소록과 수첩 등과 동문들의 개인별 프로필과 관련자료를 본부사무실로 보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자료 접수 및 문의** : 경남중·고 동창회 회원명부 편집실 (우)600-815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28-11(4층) 전화 (051)441-0159, 팩스 (051)441-4893

## 모 동문, 자기 이름 새긴 시비 세워 눈총

### 모교에 1천만원 기금 낸 건설업체 대표가 자비로 건립
### 동문들, "이래도 되나" "당장 철거하라" 비판 쏟아져

모교 교정에 모 동문이 자기 이름을 새긴 시비(詩碑)를 자비로 건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모교에 세워져 있는 기념조형물들은 대부분 각 기별 동기회가 졸업20주년 또는 30주년을 기념해 세운 것들이다. 그러나 이 시비는 개인이 자작시를 자신의 이름과 함께 새긴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가로 폭과 높이가 각각 2미터에 달하는 대형 오석과 화강암받침대로 만든 이 시비는 지난 2008년 5월에 건립됐으며 '사랑하는 경남고여!'라는 제목으로 미사여구를 동원한 영탄조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 시비는 재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원형교사 계단 옆에 세워져 다른 기념조형물들에 비해 가장 눈에 잘 띈다.

비판을 받고 있는 문제의 시비

이 시비를 세운 동문은 중견건설업체 대표로 당시 학교측에 학교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많은 동문들은 "동기회나 동창회가 모교에 기념조형물을 세운다면 몰라도 동문 개인이 자기 이름을 새긴 시비를 세운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래도 되는 거냐"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동문은 "글의 수준도 그렇지만 대표성도 없다. 전체 동문들을 우습게 보는 돌출행동이다.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도 동창회보 구독료(3만원) 내 주세요**

*보낼 계좌
부산은행 028-01-032909-1
*예금주 : 경남중고동창회

## 경남고 제66회 졸업식

### 총 졸업생 3만1천277명 배출

경남고 제66회 졸업식이 지난 2월 9일 오전 교내 체육관에서 교직원, 재학생, 학부모, 동창회 관계자 등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졸업장을 받은 졸업생은 3백51명이다. 이로써 경남고가 개교한 이래 배출한 총 졸업생은 3만1천 277명이 됐다. 이날 졸업식에서 학업 최우수상은 박창현(인문계열), 송민곤(자연계열)군이 받았다.

동창회장상은 송민곤, 김시준군이, 용마장학회 장학금은 김시준, 오성훈군이, 최성호 피부비뇨기과병원장(17회)상은 송민곤, 박창현군이 각각 받았다.

## 경남중 제69회 졸업식

### 총 졸업생 3만3천880명 배출

경남중 제69회 졸업식이 지난 2월 10일 오전 교내 체육관에서 있었다.

이날 경남중을 졸업한 학생은 282명이다. 이로써 경남중이 배출한 총 졸업생은 3만 3천 880명이 됐다.

이날 졸업식에서 종합최우수상은 예준영군이 받았고 동창회장상은 김종훈(학생회장), 운영위원장상은 이동훈, 학부모회장상은 변지수 군이 각각 받았다.

**<바로 잡습니다>**

본보 제 388호 17면에 게재된 <방송기자에서 목사로 변신한 조정민 동문> 기사에서 조 동문은 22회가 아니라 23회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주요기사 안내**

* 11회 동기 3명의 미대륙횡단 자동차여행기 – 9면
* 33산우회가 구덕산 정상비 세운 뜻은? – 10면
* 마라톤 풀코스 125번 완주한 이철의 동문 "달리며 마음 비운다" – 12면
* 평생 산에 미쳐 살아온 오기현 동문 "걸을 수 있는 한 산에는..." – 13면
* 43년째 수행 중인 허정 스님 "내가 목탁 안치고 염불 안하는 이유는..." – 15면
* 다시보는 부산 7 / 해운대 이야기(김형윤 동문) – 16면

# 본부동창회와 덕경회 합동신년회 가져

## 80여명 참석, 새해 덕담 나누며 우애 다져

본부동창회(회장 오거돈)와 덕경회(회장 송규정)의 합동신년회가 지난 2월 2일 저녁 6시 30분 부산 롯데호텔 펄룸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80여명의 동문이 참석, 공식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서로 덕담으로 신년인사를 나누며 동문으로서의 우애를 다졌다.

신년축하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부터 서병수, 노기태, 장혁표, 이길상, 정랑부, 송규정, 오거돈, 이용흠, 전재호, 김무성, 박영빈, 조경태 동문.

이날 신년회는 송규정 회장과 오거돈 회장, 전재호 재경동창회 수석부회장(21회)의 인사말에 이어 케이크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순서에서는 코메디언 이용식씨의 사회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본부 동창회와 덕경회는 매년 각기 신년회를 개최해왔으나 두 행사의 참석자가 대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 올해는 합동으로 신년회를 개최하게 됐다.

주요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다.

△ 이용흠 고문 △노기태 부산항만공사 사장 △김무성 국회의원 △정영석 동구청장 △서병수 국회의원 △박영빈 경남은행장 △박창언 한국은행 부산본부장 △조경태 국회의원 등

# 노기태 동문(20회), 회보후원금 5백만원 기탁

## "회보 잘 만들고 있어... 부족한 제작비로 사용해달라"며 격려

## 다른 동문들도 참여 권유... 후원금 늘어나면 '후원회' 결성키로

노기태 동문(20회,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지난 2월 3일 "경남중고동창회보 발전기금으로 사용해달라"며 성금 5백만원을 본부동창회 사무국으로 보내왔다.

노 동문은 "최근 우리 동창회보가 충실한 지면제작으로 동문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제작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후원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노 동문은 또 "'동창회보 없는 동창회'는 생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우리 동창회보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하고 "다른 동문들도 동창회보 후원에 적극 참여해 동창회보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제작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노기태 동문

경남중고동창회보는 현재 동문들이 내주는 구독료(년 3만원)로 회보를 제작, 발송하고 있으나 동문들이 내는 구독료만으로는 제작비가 부족해 원고료를 주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동창회보 편집제작팀은 노 동문이 보내준 후원금을 원고료지불 등 회보제작에 보태 쓸 방침이다. 또 노 동문의 이번 후원금기탁을 계기로 앞으로 다른 동문들도 회보후원금을 보내올 경우 뜻있는 동문들로 '동창회보 후원회'를 결성, 후원금을 엄정하게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 재경동창회 정기총회 겸 신년회

## 배주원, 박영빈, 조병현 동문 '자랑스런 용마상' 받아

## 오 회장, "본부동창회장을 부산과 서울서 교대로 맡자" 제안

재경동창회(회장 임우근)는 지난 2월 8일 저녁 6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정기총회 겸 신년회를 개최했다. **〈사진〉**

2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모임은 임우근 재경회장, 오거돈 본부회장,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공로패 및 용마상 시상, 예결산 보고 및 승인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우근 재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흑룡의 해를 맞아 용마의 기상으로 세계를 품는 '글로벌 용마'가 되자"고 말했다.

오거돈 본부동창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동문들에게 신세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본부 동창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본부동창회 회장을 본부동창회와 재경동창회에서 교대로 맡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자랑스런 용마상'은 배주원 동문(8회, 전 주한 싱가폴 명예총영사), 박영빈 동문(27회, 경남은행장), 조병현 동문(28회, 서울행정법원장)이 받았다.

또 공로상은 강실근 동문(23회, 직전 재경동창회 사무총장)에게 주어졌다.

2부 행사에서는 축하시루떡 자르기, 축배, 만찬사,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 ◇ 2011년 12월 5일 실시된 용마골프대회 협찬자 명단

**〈협찬금 낸 동문〉**

△**오거돈**(21회, 동창회 회장) 300만원 △**오완수**(11회, 대한제강㈜ 회장) 200만원 △**안강태**(11회, 동창회 명예회장) 100만원 △**이용흠**(19회, 동창회 고문) 100만원 △**임우근**(19회, 재경동창회 회장) 100만원 △**황태원**(19회, ㈜기명 대표이사) 100만원 △**강창수**(21회, 대경F&B㈜ 대표이사) 100만원 △**최원종**(21회, 한국허치슨터미널㈜ 사장) 100만원 △**이영흔**(23회, 삼우금속㈜ 대표이사) 100만원 △**박명진**(33회, ㈜고려개발 대표이사) 100만원 △**송규정**(16회, ㈜윈스틸 회장) 50만원 △**양성민**(16회, 조광페인트㈜ 회장) 50만원 △**남진현**(19회, ㈜토경엔터프라이즈 부회장) 50만원 △**김진철**(25회, ㈜디오 회장) 50만원 △**박영빈**(27회, 경남은행장) 50만원 △**평마골프회** 50만원 △**ECONEX** 40만원 △**김길제**(18회, ㈜M.S.C 대표이사) 30만원 △**이수창**(17회, 남광석유판매㈜ 대표이사) 26만원 **(이상 금액, 기수 순)**

**〈협찬품 낸 동문〉**

△**조규향**(14회, 동아대 총장) 쿠쿠전자밥솥 1점 △**정랑부**(17회, 동의대 총장) 스킨팩 10점 △**여성열**(17회, 서면골프 대표) 드라이버·우드·퍼터 각 1점 △**최만식**(17회, 대한색소공업㈜ 회장) 홀인원상(말리부) △**서부원**(18회, 한솔공인중개 대표) 미니소화기 20개 △**장상배**(20회, 광복쇼핑㈜ 대표이사) 골프웨어 1점 △**강창수**(21회, 대경F&B㈜ 대표이사) 명란세트 10점(개당 10만원 상당) △**구본능**(21회, 재경동창회 부회장) TV 1대(42인치 LED) △**유재진**(22회, 부산스타자동차㈜ 회장) 홀인원상(벤츠 마이비)·골프우산 200점·골프백세트 4개 △**송수건**(24회, 경성대 총장) 벨트 5점 △**박장현**(26회, 북한음식점 대표) 골프용 양말 50족 △**류명석**(31회, ㈜경민TNM 대표이사) 와이셔츠 30벌 △**박명진**(33회, ㈜고려개발 대표이사) 호텔숙박권 4매 △**39회 동기회** 상품권 10만원권 2장 △**한수열**(40회, 여행스토리㈜ 대표이사) 퍼터 1개 △**ECONEX**(성찬기 41회·김수용 44회·정용구 44회) 타올 220장 △**윤승호**(부산C.C 이사장) 골프백 세트 1점 **(이상 기수 순)**

**구독료를 내주시는 동문 여러분들이**
**경남중고동창회보의 주인입니다.**

2012년도 회보구독료(년 3만원)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028-01-032909-1 예금주 경남중고동창회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해도 됩니다)

# 경남고 생물반 거쳐 간 전체 동문 파악됐다

## 생물반 OB모임 생우회, 7회부터 55회까지 318명 명단작성
## 1951년 3월 주상우 선생님이 생물반 처음 만들어

경남고에 생물반이 생긴 이래 생물반을 거쳐 간 전체 동문들의 명단이 처음으로 파악됐다.

생물반OB들의 모임인 생우회의 박태종 회장(33회, 김앤정 해운대병원 행정이사)은 생물반이 출범했던 1953년부터 발간했던 생물반 회보 <Virus> 제1호~52호에 나와있는 당시의 생물반 반원들(7회부터 48회까지)의 이름을 찾아냈다.

박 회장은 이 명단을 이미 생우회가 파악해두고 있던 48회 이후의 생물반 반원들의 명단과 취합, 지금까지 생물반을 거쳐간 전체 반원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생물반 회보 <Virus>는 생물반이 창립된 1953년 12월에 제1호가 발간돼 48회가 졸업한 해까지 총 52호까지 발간된 뒤 중단됐다.

생우회에 따르면 모교 생물반은 1953년 3월 당시 생물을 가르친 주상우 선생님에 의해 창립됐고 당시 주축이 된 기수는 7회였다. 그 후 해마다 생물반원들이 충원됐고 해가 거듭될수록 경남고 생물반을 거쳐 간 동문들의 숫자는 늘어났다.

이번에 생우회가 총집계한 역대 생물반 반원은 7회부터 55회까지 모두 318명.

일개 동아리가 쌓아온 50년에 가까운 역사도 대단하지만 오래 전에 발행된 회보가 멸실되지 않고 여지껏 보관돼 왔고 그것을 통해 학창시절 잠깐 몸담았던 생물반 반원들의 이름이 파악된 것은 자칫 사라질 뻔 했던 모교 역사의 한 조각을 찾아내 복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53년 12월에 발행된 생물반 회보 〈Virus〉 창간호. 〈사진제공=박태종 동문(33회)〉

### 경남고 생물반을 거쳐 간 동문들
〈생우회 제공〉

△**7회**= 김종수 이서윤 이성화 이원호 차일권 △**8회**= 김병수 김영길 김재철 박우상 서영욱이봉상 △**9회**= 갈영근 김종구 김창국 유금열 윤방옥 윤일영 이상제 이철규 정인호 지삼봉홍광수 △**10회**= 김기문 김대관 김승찬 김정학 박완곤 서철하 예종두 이상원 이 승 장인목 차동석 황수석 △**11회**= 공상기 김성규 김형관 양웅석 이채화 이해수 △**12회**= 강본순 강상기 강인주 강창수 김명호 김영보 김종성 남궁영수 박창수 박현철 백응권 서병기 안영규 엄태섭 윤명효 장태영 최병준 황규신 △**13회**= 김정균 박 승 박주열 윤승삼 조성호 △**14회**= 강영무 공철성 김금일 박청홍 반미태 오경희 윤승흥 윤용남 정 훤 홍기하 △**15회**= 강동규 강영식 강정남 김기남 김기용 김길영 김상차 이동진 조영일 최광웅 최태치 하창락 △**16회**= 민홍식 이성규 주기민 천 경 천태상 한명수 허경뢰 △**17회**= 김백권 김홍규 고배식 손성근 신함춘 입웅철 정재근 정이근 최홍배 △**18회**= 강종식 김영철 이호감 전태종 천두갑 △**19회** = 김성철 손말현 심명섭 윤영규 이상우 임채원 정학영 주승돈 △**20회**= 김대원 이상익 장명길 △**21회**= 김정중 노진호 박광주 박기환 박종운 이태영 정갑식 조진호 조현병 차동민 허용도 △**22회**= 김석영 김준태 서창섭 안승욱 이상운 임동우 정갑열 주하희 진성기 △**23회**= 김건희 김상호 김영철 김영화 김현욱 백인창 송충송 신언극 엄효준 윤영채 이성환이창우 임영일 임채열 장세완 장재영 정상건 조재형 조기제 △**24회**= 김재욱 김재흥 김기준전중탁 조재진 △**25회**= 김의장 △**26회** = 이상원 왕정입 △**27회**= 박진우 이현규 △**28회**= 구영소 김동규 이민우 정연재 이우사 이상렵 장의철 △**29회**= 허광욱 박상환 정 란 홍부표 김광우 김용환 김갑수 △**30회**= 조재우 이한우 김창근 오정균 김기수 최인식 조성택 이경태△**31회**= 정대열 고영호 강대석 박성철 김동우 이성철 박성무 박동근 △**32회**= 김종민 김창옥 이명환 이원동 이봉희 이주형 이진호 정연재 △**33회**= 김법영 김태훈 이기성 이성진 박태종 정한승 최문호 최의열 △**34회**= 곽정일 김지윤 서봉교 신용진 우영민 윤성부 정연일 △**35회**= 김세정 손경현 신송우 정재균 조권재 한만두 △**36회**= 김재영 박주석 신태원 장현수 황재호 △**37회**= 김정수 김영일 권기원 이순섭 이충고 △**38회**= 박동원 박순한 이재인 이창호 장지수 정성태 한욱환 △**39회**= 고봉정 김기현 김대혁 김희승 박용한 송정재 최정현 홍진기 △**40회**= 서정민 옥진형 정경두 △**41회**= 권승호 김 구 김동원 최범호 △**42회**= 신봉준 이정철 △**43회**= 김성룡 김옥균 문기봉 문대인 박일경 이대철 장강민 조승현 △**44회**= 김광우 김재영 김진룡 박경환 전종철 하창우 △**45회**= 김용주 김정환 김준영 신상왕 윤증일 이태현 이훈재 △**46회**= 강석빈 김성진 권오석 권인규 구경민 김승엽 박기정 안명기 △**47회**= 김재현 김홍민 남태형 신 준 윤필호 최지훈 △**48회**= 김기도 김재명 김경섭 박재훈이동화 이상민 이재우 이종철 장우영 정규석 조형석 최종필 △**49회**= 권민욱 김도윤 김록은김준렵 김학현 안두근 임한섭 최명욱 최연혁 △**50회**= 이찬주 △**51회**= 오준호 △**55회** = 이동규

# 심성락 동문, 명예졸업장 받는다

## '아코디언계의 거장'으로 활동, 모교를 빛낸 공로 평가
## "가난으로 경남고 2년 때 학업 포기한 한 풀었다" 소감

'한국 아코디언연주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칭송받는 심성락 동문(10회, 본명 심임섭)이 오는 4월30일 모교 개교70주년 기념식에서 명예졸업장을 받는다.

모교 김원용 교장은 "본부동창회와 10회 동기회 등의 추천에 따라 평생 아코디언연주로 독보적인 활동을 펼쳐 모교의 이름을 빛낸 심 동문에게 명예졸업장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 동문은 경남중을 졸업하고 경남고에 진학했으나 가난으로 2학년 때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했다.

그는 그 후 아코디언을 독학으로 배워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에서 50년동안 유명 대중가수들의 앨범녹음에 참여했으며 260장의 경음악집을 내는 등 활약해 오다가 최근 은퇴했다.

심성락 동문

심 동문은 명예졸업장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고맙다. 가난으로 경남고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평생 한을 안고 살아왔는데 이제야 그 한을 풀게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 남수단에 '이태석 기념 의대병원' 짓는다

## 정부, 남수단과 MOU 체결
## 톤즈마을 재건도 추진

아프리카 남수단에 '이태석 기념 의대병원'이 세워진다.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KBS는 지난 1월 30일 남수단 정부 대표단과 '울지마 톤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프로젝트의 골자는 남수단 수도 주바에 현지 최초로 현대식 종합병원과 의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건립 자금 및 의료기자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의대 교수진 파견, 의대 교육과정 개발 및 병원 운영 노하우 전수 등 기술협력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또 이 동문이 선종하기 전까지 머무르던 톤즈마을의 재건사업도 추진된다. 그의 선종 이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톤즈마을 병원을 정상화하며, 인근 한센인 마을에는 '이태석 보건소'가 건립될 예정이다.

### 경남고 재학생 30명 파이낸셜 뉴스사 견학

경남고 재학생 30여명이 지난 12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파이낸셜 뉴스'사(회장 전재호, 21회, 재경동창회 수석부회장)를 방문, 신문 제작과정을 견학했다. 〈사진〉

학년 별로 각 10명씩 선발된 경남고 재학생들은 이날 1시간여에 걸쳐 편집국 내 각 부서 업무와 온 · 오프라인 통합 시스템 등 신문제작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2012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 2012년 2월 23일 기준
* 총 1,147명 / ( )는 2013년도분 선납부자

**1회(2명)** 박상필 허종수

**3회(10명)** 김희철 노관택 문병집 박준양 손주석 신정택 원호출 이 경 이안규 황성남

**4회(13명)** 김상희 김용해 김주호 문태상 이남규 장수호 정상천 정순모 정치근 조성일 조오제 조홍제 황갑생

**5회(11명)** 김진휴 김형대 박봉식 박장후 백승주 송두성 유병한 이경옥 정진우 진도영 최영철

**6회(15명)** 김상엽 노재형 박영대 배종권 변영수 이현우 장재수 정경규 정덕환 정세동 정승화 조정규 천산무 최한병 허 택

**7회(22명)** 강창구 구택용 김갑성 김광육 김명관 김삼현 김용우 남홍우 류상남 박환배 배건식 서우찬 소진은 송외득 윤진헌 윤치우 이동우 이상주 이태림 임성극 조덕찬 합흥주

**8회(18명)** 도은영 박동열 박우상 박재범 배기현 배주원 서연수 안종열 이상목 이유환 이윤조 이창탁 이희순 장혁표 조성래 조윤제 지창수 최재혁

**9회(24명)** 강영진 김기관 김동용 김성탁 김이도 김종호 노도현 박당희 박영복 박한복 신석현 안규현 안병환 원중희 유병철 윤일명 이대규 장동근 전인규 정 록 조성진 지삼봉 최성욱 최종현

**10회(16명)** 김문희 김성규 김연수 김정학 박주환 오강욱 이민섭 이봉원 이언희 장청구 전영대 정종만 조길수 진 강 최성열 허영백

**11회(36명)** 공상기 곽정출 곽태엽 김병태 김삼진 김선길 김수정 김윤택 김인섭 김재환 김정수 김태호 문정오 박수경 박용관 박태오 박희태 서자윤 서진갑 성기득 심재룡 안강태 양호춘 오길훈 유홍종 윤재석 이감우 이상태 이재진 이정기 이종문 장영권 제정오 조현도 최득호 최태원 **(박희태)**

**12회(45명)** 강본순 강종신 공 문 권시길 권연상 길철종 김기인 김봉하 김부생 김상렬 김석곤 김지희 남기용 박분기 박상도 박영윤 박정윤 변동만 서병기 손제준 안용득 오세정 옥계한 윤학근 이규만 이상현 이수영 이승분 이승태 이용언 이원우 이환철 임성삼 장동석 정대식 정수복 정호중 차민도 차수명 천금태 최병준 추영재 허은도 홍두표 황태영

**13회(51명)** 강귀동 김동호 김무조 김신부 김영명 김정균 김정일 김치득 김한규 김형태 문 창 박안남 박원길 박종탁 박홍표 배대결 서시주 성정호 신민철 신용태 신하근 양길승 오원수 윤영우 윤태호 이경재 이근모 이명진 이상문 이일희 이정호 이종달 이창열 이철세 임소철 임영홍 임진부 장용웅 전복룡 정로상 정문화 정은섭 정철기 제병민 조병성 조철현 최상호 최태환 한병조 한진희 허갑도

**14회(23명)** 김일암 김종범 노방현 문운용 박철수 박청길 성이경 신기석 신용진 신준호 신현호 유정호 윤영현 윤태규 이길미 이진우 이효근 정선언 최건차 최경열 최성웅 최충락 허 증

**15회(38명)** 강무송 강창일 권대식 김경일 김상차 김소헌 김양일 김옥규 김종한 김준군 김황영 남암순 명호근 박영길 박철양 배성훈 서정욱 손부홍 송길웅 신용기 신현영 오봉석 이 준 이필언 임상택 임영길 장종호 정길수 정영부 정준수 정 총 조영일 주정중 최원수 한진출 허경도 허종덕 홍익찬

**16회(38명)** 강영주 강종국 강진중 공명규 권복술 김길정 김덕찬 김영우 김일규 김조 김종석 김현호 노상현 노원소 민병룡 박상우 박 흥 배정희 설희순 성기식 송규정 오광치 오형철 옥윤석 이계웅 이균오 이무근 이양근 이종승 이채언 이청원 이효일 정우광 조원제 차상영 채경일 최정일 하희진

**17회(35명)** 강청작 김길호 김동수 김인곤 김준위 김중성 김효남 남궁성은 박가식 박신도 배재욱 서정승 송유근 송인문 신 종 오충한 윤성욱 이건웅 이선형 이성홈 이세복 이정보 이주봉 임우택 장길성 장승구 전경명 전영부 정동길 정병열 정왕주 제양성 천용광 최성호 추봉실

**18회(38명)** 강인섭 강정일 고병현 김경겉 김경권 김동회 김두천 김성준 김순곤 김재창 김종상 김종철 노정규 류종우 박건태 박노숙 박덕봉 박민학 박 용 박용혁 박준성 양용길 유영석 윤봉수 이대운 이재일 임채영 전상곤 조성재 좌경용 주상섭 지문석 최 인 최진수 최희영 허영태 홍우재 황광건

**19회(53명)** 공기주 김경우 김경재 김덕규 김명수 김배호 김석구 김석윤 김성욱 김성영 김학균 노평호 문원경 배호원 변대석 변종호 부근시 손병용 송기영 송현준 오세길 이영화 이웅규 이철응 이치백 장광훈 장무성 장성복 정해진 조순태 조흥기 주우실 최형민 한경규 허승조 허 온 홍태구 이름불명1명

**23회(42명)** 김건일 김동욱 김상태 김상현 김상현 김석헌 김영목 김익곤 김재봉 김중광 김태용 김태홍 문규철 박동현 박수갑 박철병 배종순 서영수 서한현 송충송 안병관 옥치범 원인건 윤순현 윤종관 이동성 이상렬 이수백 이일원 장기원 장대익 전영조 전재홍 정동일 정상건 정희원 조한용 채행윤 최인식 최춘흡 최태인 하승윤

**24회(56명)** 강영창 강정운 공문수 곽두희 권해영 김경남 김동운 김동진 김명배 김무성 김성득 김승탁 김영범 김영식 김운섭 김정안 김종환 김진윤 김한군 김헌태 노상우 박맹렬 박성표 박창종 박창호 배종갑 서손상 서정대 서정득 손세영 손종식 송민호 신장우 안형수 여철우 이기원 이명복 이 수 이재성 이한영 임민호 장현동 전용우 정광윤 정명근 정봉화 정영석 정철화 조용건 차동렬 최현규 태창업 한상렬 홍용기 황성동 황성훈

**25회(48명)** 고명식 권수갑 권태용 김경환 김국진 김남일 김동식 김봉철 김상겸 김수룡 김수석 김옥권 김옥철 김우형 김재홍 김종윤 김종현 김진철 김찬규 박거환 박동건 박맹우 박세철 박인동 박종찬 배동명 백승익 백영건 서인진 서재규 손국영 송영근 승효상 윤희대 이근만 이기종 이대우 이창훈 정신배 정철수 조대우 조 익 주재걸 진익철 최동하 탁준길 한준석 허 택

**26회(51명)** 강맹원 강용수 고석훈 김기태 김두천 김만석 김사식 김영섭 김재용 김종우 김창호 김태규 김호용 노영석 박경재 박남식 박동조 박재우 박종국 박태룡 방홍기 백문현 성백운 성재업 손욱호 신기용 신재호 안길효 양준영 왕효석 유평진 윤승용 이경호 이규용 이기주 이명진 이상원 이순철 이승무 이유상 이철학 이희준 정윤철 정익교 조일제 차인식 최성락 하성봉 하주곤 한창학 현동우

**27회(33명)** 김근우 김병옥 김상문 김영삼 김우진 김원용 김홍근 김황열 김훈탁 나찬희 류재걸 문두찬 문성기 박규욱 박병주 박승준 박완기 박종국 박치호 신한원 양태종 윤종락 이기봉 이상용 이천식 전 풍 조명진 조봉관 최휴진 하창우 한상훈 한수길 이름불명1명

**28회(35명)** 권수원 김대생 김만종 김영철 김용석 김용섭 노영현 리신호 박진화 배명철 백선용 백진수 서상철 성락문 손광락 신중현 안재홍 오현석 윤경섭 윤대주 윤명일 이경포 이범수 이양훈 이용남 이인수 장기남 전재만 정백수 정연재 정해영 주종목 주창석 최광해 최연욱

**29회(37명)** 강대용 곽태섭 금시환 김대영 김대욱 김인술 김정규 김철오 문백섭 박국인 박근우 박동일 박동혁 박문규 박병률 박성철 박인균 박창언 배진영 서붕교 서석희 송철호 신홍기 안청홍 윤석희 윤종경 이석조 이수돈 이준환 전현수 제영묘 주재휘 최기훈 최정만 최종열 현계성 황유명

**30회(34명)** 강석철 권용택 김승대 김영일 김재수 김종진 김진권 김해곤 김현태 노동춘 박병규 박원호 박희관 서민석 서복현 송철수 신도현 심풍수 안종화 옥유전 윤인태 윤종순 인준승 전경재 정광덕 정규홍 정기룡 정성원 정승진 정영호 조순영 최석별 허영재 황철민

**31회(37명)** 고영호 공종렬 김문기 김영학 김태근 김현주 김현율 남기태 류명석 박인정 박준석 박춘열 박희암 배정우 성낙형 성락순 손영태 신상하 신수열 신용필 심재홍 오민일 옥치호 윤석중 이배철 이병곤 이성식 정무석 정정남 조영기 천장호 최진섭 최해영 하명수 하병관 허일현 홍철민

**32회(19명)** 김광기 김영길 김재학 김정열 김종성 김종식 김창범 박상학 박효식 신국선 신철호 안병철 이병준 임채균 정용운 정의주 최영훈 최호영 허수철

**33회(25명)** 계동원 김근수 김기산 김법영 김재선 김종현 김진일 김 철 김충일 김태훈 노경호 노종현 류장근 박명제 배종현 서재영 신용준 예영찬 오상기 윤태웅 정영호 정인실 최영두 최웅남 최호경

**34회(9명)** 김종식 김태완 김태하 옥재명 이진호 정노혁 조문국 홍승철 황병주

**35회(12명)** 김동일 김세정 김우경 김우신 김태균 박창석 성창용 이남기 이창성 정문종 최근식 황용순

**36회(16명)** 김근수 김덕환 김영훈 김재일 김종일 김희환 남우진 박철종 신용덕 이정영 임서용 임창섭 정인석 최승호 최필조 홍의창

**37회(16명)** 김성현 김영곤 김영광 김영태 김원범 박규배 박용진 석영태 성창수 전인수 조성각 조영규 허부남 홍병일 황태윤 이름불명1명

**38회(7명)** 김현민 박준표 안길수 윤경만 정인철 정준기 조용철

**39회(10명)** 김도경 김윤홍 문기호 손석호 윤동배 이성태 이창훈 임성욱 장윤혁 정도연

**40회(13명)** 김경환 김성진 김영진 김정현 박상범 박영권 배영진 양영렬 옥진형 우영환 이 기 이영철 최태훈

**41회(11명)** 강석희 김봉준 김형률 성찬기 안광근 양덕호 이경호 이양걸 이윤서 이종민 임병호

**42회(5명)** 박동식 백영환 서정호 신동복 정홍준

**43회(2명)** 박태건 차중호

**44회(6명)** 배봉건 서영민 안병규 임정훈 정종윤 조현우

**45회(3명)** 김찬수 박 웅 장성익

**47회(2명)** 고달우 성상용

**49회(2명)** 이충현 이름불명1명

**50회(2명)** 안개영 정희석

**53회(1명)** 이재홍

*기수불명(2명) 김동진 조용숙

*기수&이름불명(1명)

*기타(3명) 성환진 김다리아 김매리아

***구독료를 내주신 동문님들께 =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료를 내지 않은 동문님들에게 = 제작비 부족으로 회보제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012년도 회보 구독료(년3만원)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로 회보를 제작,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028-01-032909-1 예금주 경남중고동창회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해도 됩니다)

**구독료 관련 문의**

동창회 사무실 황 유 명

Tel. (051)245-7551~3 / Fax. (051)245-7550

## 삶의 현장... 용마가 달린다 ⑤ / 발리 전문여행사 '발리지기' 대표 한동엽 동문(46회)

# "발리로 멋진 여행 가실 분 저에게 오세요"

## 서울에 본사, 현지에 여행사 두고 차별화된 맞춤여행 제공

한동엽 동문(46회)은 10년 전 발리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그만 그곳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다. 그 후 매년 발리로 놀러갔다. 가보면 가볼수록 발리를 사랑하게 됐다. 그래서 2005년 6월 자신의 신혼여행을 가이드 했던 현지 여행사 '발리지기'를 인수했다. 이어 서울에 '발리지기'의 본사를, 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7년째 발리 전문여행사를 경영하고 있다.

장발에 케주얼 차림의 한 동문은 첫눈에 여행사사장이라기 보다는 연예인 같은 느낌을 주었다. 동아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 롯데손해보험 전산실에서 근무하다가 여행업에 뛰어 들었다. 발리 현지 회사에 20여명, 서울 본사(강남구 역삼동)에 7명의 직원을 각각 두고 부산 해운대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는 그는 자신을 '여행 컨설턴트'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발리지기'는 발리만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여행 전문여행사다. 컨설팅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 고객과 함께 구체적인 플랜을 짜서 현지로 보내면 현지 자회사의 직원들이 핸들링하는 영업체계다. 여행객들을 내보내는 회사(송출회사)와 현지 핸들링회사가 다르기 마련인 국내의 다른 여행사와는 달리 출발에서 귀국까지 전 일정을 한 회사가 컨트롤하기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객 위주의 개별 맞춤여행이어서 고객에 따라서 숙소 음식점 교통편 관광내용 등이 다 달라진다. 현지 가이드는 '고객의 집사' 역할을 최저히 한다. 가이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고객위주의 가이드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행 가서 기분 잡치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한다. 은행으로 치면 부자고객만을 상대하는 프라이빗 은행인 셈이다.

"그렇게 하면 여행경비가 비쌀 것 같다"는 지적에 그는 "꼭 그렇지도 않다"고 답했다. 현지에 핸들링회사를 지영하고 있는데다가 차량이나 각종 해양스포츠 장비 등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했다. 현지에서 별도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가 없다는 것. 물론 대중화된 패키지여행상품보다는 비싸나 여행의 질을 감안하면 오히려 싸다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리가 얼마나 큰 섬인 줄 아세요. 서울의 8배나 되는 큰 섬입니다. 보통 한국사람들은 3박4일 일정으로 그곳에 가는데 그 일정으로는 진짜 발리를 보거나 즐기기가 어렵지요. 발리는 정말 보고 즐길 것이 무궁무진한 여행지입니다."

부산사무소가 있는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건물앞에 선 한동엽 동문.

'발리지기'는 지난해 6백여쌍의 신혼부부여행객, 5백여명의 가족여행객들과 골프여행객들을 송출했다. 6년 전 첫해 달랑 6쌍의 신혼부부를 내보냈던 것에 비하면 급성장을 한 것이다. '발리지기'는 최근 들어 입소문을 타고 마니아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진 여행사다. 특히 신혼여행을 가려는 젊은이들과 골프여행을 가려는 중장년들에게 인기가 높다.

"당초 저의 욕심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행패턴을 바꾸고 여행문화의 수준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단체여행이나 패키지여행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점차 '나만의 여행', '고급스런 여행'을 하려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 동문은 "돈은 좀 벌었느냐"는 질문에 "먹고 살만큼은 벌고 있습니다"라고 웃으며 답했다. "우리 용마동문님들이나 자녀분들이 발리로 신혼여행이나 골프여행을 가신다면 특별히 잘 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발리지기' 홈페이지 = http://www.balizigi.com/**

**<황유명 편집위원(29회)>**

## 동창회 일꾼들

### 34회 동기회 국장 오주흔 동문

## "세상 먼저 뜨는 동기들이 해마다 나오니..."

34회 동기회(부산)의 국장을 맡고 있는 오주흔 동문은 동기회 국장이 벌써 두 번째다. 10년 전 쯤 3년간 국장을 맡았던 적이 있고 지난 2009년부터 다시 국장을 맡아 4년째 동기회를 이끌고 있다. "국장 일이 힘들지 않느냐"는 말에 그는 "누가 해도 해야 할 일 아니냐"며 덤덤하게 말했다.

34회 동기회는 평소에는 서부지회와 동부지회로 나누어 모임을 갖다가 3개월에 한 번씩 통합모임을 갖는다. 이 때 3, 40명 정도가 참가한다고 한다. 더 많은 동기들이 모임에 나왔으면 하는 게 그의 욕심이나 그게 쉽지 않아 고민이라고 했다.

국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기수도 마찬가지겠지만, 동기들의 길흉사를 챙기는 일이다. 특히 부모님들의 길흉사가 가장 많을 나이여서 전에 비해 국장으로서 할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오 동문은 "최근 들어 어찌된 일인지 세상을 먼저 뜨는 동기들이 해마다 한둘은 꼭 나온다"며 "우리 동기들이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비바람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제운송업체인 태흥국제운송 이사로 있는 그는 "요즘 경제침체로 운송사업이 좋지않다"며 "수출입회사를 경영하는 우리 동문들이 도와주면 좋겠다"며 웃으며 말했다.

경성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아들만 둘(27살, 21살)을 두고 있다.

### 부산 사하구 동창회 부회장 백창봉 동문(41회)

## 모임 때마다 여흥 진행... '웃음 전도사'

백창봉 동문(41회)은 동기회를 결성, 10년 가까이 회장을 맡아 이끌어왔고 현재 부산 사하지역동창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동창회 일에는 누구보다 열성적이다. 현재 부산 하단 소재 음식점 강촌휘미리타운을 경영하고 있다. 2009년 모친의 별세로 가업을 이어받았다.

최근 사하지역동창회(회장 류명석, 31회)는 어느 지역동창회 보다 활동이 활발해졌다. 지난해 12월 1일 열린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는 13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 전례없는 성황을 이뤘다. 수년 전 겨우 4, 50명 정도만 모이던 것에 비하면 대단한 변화다. 집행부의 열의에 힘입은 결과이나 백 동문이 뛰어난 사회실력으로 모임을 이끌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공인 레크레이션 2급 자격증을 부산1호로 취득하고 1급 국제 웃음치료사이기도 한 백 동문은 지난 5년 동안 사하동창회의 각종 모임에서 2부 여흥시간을 도맡아서 진행해왔다. 그가 진행을 맡으면 웃음이 연방 터진다. 사하구동창회의 각종 모임들이 백 동문이 경영하는 강촌휘미리타운에서 주로 열리는 것을 놓고 그는 "당연히 저의 몫이죠. 경남고는 저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해 동문들을 웃긴다. 이런 백 동문을 두고 우리 동문들은 '웃음의 전도사'라고 부르며 "사하구동창회의 보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부인과 딸(삼성여고 2), 아들(대동중 2)을 두고 있다.

## 동기회 소식

### ◇ 14회 = 정기총회 및 신년회 개최

지난 1월 19일 초량 소재 노블리아뷔페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 이날 2011년도 업무보고와 수지결산 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허민영 회장과 반미태 사무국장의 연임 결정.

### ◇ 19회 = 재경회장단, 울산 부산 창원 순방

재경동기회 박성철 회장, 조순제 총무, 김인선 전임회장, 최홍표 산악회 회장은 지난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울산동기회, 부산동기회, 창원 및 김해동기회를 순방하며 동기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통합주소록 제작, 전국 합동등산,당구대회 등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첫날 울산에서 권정학 울산동기회장 등을 만나 만찬을 가졌고 이튿날에는 부산으로 이동, 박갑진 부산동기회장 등과 명률횟집에서 오찬을 했다.

이어 창원으로 이동, 백종무 창원동기회장과 김영우 김해동기회장과 만나 동기회활성화방안 등을 논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귀경길에는 충주에 들려 정순창 동기를 만났다.

### ◇ 21회 = 차기회장에 정익주 동문 선출

지난 12월 27일 부산역 앞 '홍성방'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 개최.

이날 2년간 회장직을 맡아온 최원종 동문에게 공로패가 전달됐고 차기 회장으로 정익주 동문이, 국장에 권오균 동문이 선임됐다.

### ◇ 26회 = 차기회장에 이규용 동문 선출

지난 1월 27일 부산 사상 소재 르네상스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회 개최.

70여명의 동문들이 모인 이날 총회에서는 2011년도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차기회장에 이규용 동문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 ◇ 31회 = 차기회장에 홍성수 동문 선출

지난 1월 13일 연산동 소재 해암뷔페에서 201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이날 2011년도 회계감사 보고 및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지난해 각각 서부 · 동부 지회장을 맡아 수고한 박석기, 공종렬 동기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차기 회장으로 홍성수 동문을 선출.

### ◇ 38회 = 정기모임

지난 1월 10일 서면 소재 '신토불이'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통장 수지보고 및 동기회 운영 방향, 행

## 어디선 무엇을...

**〈8회〉**

△**도은영** = 부산시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한글강사로 봉사 중

**〈10회〉**

△**고용재** = 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무지개A. 1508호, 070-8981-4636 △**김한조** = 부산시 진구 개금2동 633-45호 △**이상배**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731-1 △**조길수** = 2월 11일 아들 결혼, 서울 헤리츠웨딩컨벤션

**〈11회〉**

△**성기득**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90 더클래식500 A동 4701호

**〈12회〉**

△**정기정** = 전 마산MBC 사장,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취임

**〈13회〉**

△**구덕건** =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 금산패밀리타운 1동 1508호 △**김광수** = 1월 10일 모친상, 신촌세브란스병원 △**안준수** = 부산시 수영구 망미2동 1128 수영강변2차e편한세상 206동 1001호 △**임용수** = '코리아세븐편의점 모라역점' 개업,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979-1 △**조정현** = 2월 6일 부친상, 부산 영락공원

**〈14회〉**

△**김영수** = 2월 4일 장녀 결혼, 서울 포에버리더스

**〈15회〉**

△**강부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2동 효자촌현대A. 114동 902호 △**김경일** = 2월 15일 장녀 혜린양 피아노독주회, 부산문화회관 증극장 △**명호근** = 성진엔지니어링(주) 회장에서 '(주)해주' 회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래미안서초유니빌 1821호 △**신홍규** = 2월 21일 장녀 결혼, 해운대센텀호텔 △**한해수** = 12월 31일 모친상, 동아대병원 △**서명궁** = 아들 결혼식(2월19일 오후 2시20분 서울 공항 컨벤션 웨딩 홀) 참석 위해 뉴질랜드에서 일시 귀국. 4월 10일경 출국 예정. 서 동문은 1996년 뉴질랜드로 이민. 연락 : 뉴질랜드 Tel : 837-1567

**〈16회〉**

△**박 홍** = 2월 17일 딸 세정양 부산대에서 나노공학박사 학위 취득 △**송규정** = (주)윈스틸 회장, 1월 21일 동기 친구들 30여명을 사랑채 식당으로 초청, 설 잔치

**〈알림〉** 2012 총회 = 2월 24일 저녁 6시 구포집. 올해는 졸업 50주년 홈커밍. 동기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 당부.

**〈17회〉**

△**김성오** = 2월 1일 장모상, 부산대병원 △**김수홍** = 1월 6일 장인상, 인제대 일산백병원 △**김용기** = '신항만S.I물류회사' 사장, 010-8510-1040 △**박흥식**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723 이지더원A. 103동 1902호 △**서방세** = 2월 12일 딸 결혼, 서울 엘페르티 △**어윤대** = 2월 10일 모친상, 고려대 안암병원 △**오진식** = 2월 18일 딸 결혼, 서울 시어터웨딩 라무르 △**정량부** = 2월 11일 차녀 결혼, 부산 헤리움웨딩컨벤션

**〈18회〉**

△**김철용** = 2월 11일 차녀 결혼, 서울 웨딩의전당 △**서재봉** = 1월 15일 장녀 결혼, 서울 GS타워

**〈19회〉**

△**김영백** = 2월 18일 막내아들 결혼, 서울 극동교회 △**최경석** = 1월19일 모친상, 서울 삼성병원 △**한태수**(연변과기대 교수), **김진호**(전 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 = 1월 12일 부친상/장인상, 부산 광혜병원

**〈20회〉**

△**김만섭** = 2월 4일 장남 결혼, 서울 헤리츠 △**김종기** = 2월 25일 아들 결혼, 여의도웨딩컨벤션 △**남경렬** = 12월 31일 상배, 좋은강안병원 △**노승구** = 12월 29일 모친상, 좋은강안병원 △**박 준** = 1월 1일부로 '(주)농심 대표이사' 사장 취임 △**송상윤** = 3월 18일 장남 결혼, 르네상스호텔 △**오초한** = 2월 7일 장모상, 서울시보라매병원 △**이기만** = 12월 29일 모친상, 서호병원 △**정순헌** = 1월 28일 장남 결혼, 천주교 영동성당

**〈21회〉**

△**강창수** = 3월 10일 장남 결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 △**배종호** = 3월 10일 딸 결혼, 서울 SC컨벤션 강남센터 △**설광석** = 2월 18일 장녀 결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손경호** = 3월 17일 장녀 결혼, 서울 엘리시안웨딩홀 △**송재영** =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62-7 젤미마을파크뷰 802동 607호 △**한대윤** = 1월 28일 장남 결혼, 호텔현대경주 △**한수민** = 2월 5일 아들 결혼, 부산 W웨딩

**〈22회〉**

△**정병국** = 2월 11일 아들 결혼, 서울 웨딩의전당

**〈23회〉**

△**강영걸** = 2월 16일 모친상, 부산 중앙성당 △**김상태** = 2월 18일 장남 결혼, 서울 Y타워컨벤션 △**김영기** = 2월 16일 모친상, 조은금강병원 △**이강식** = 3월 3일 차남 결혼, 여의도침례교회 △**이백기** = 2월 8일 모친상, 동의의료원 △**이충호** = 2월 4일 장남 결혼, 곤자가컨벤션 △**장광호** = 3월 1일 차남 결혼, 뉴힐탑호텔 △**전무수** = 2월 1일 모친상, 안양 중앙성당

**〈24회〉**

△**김도인** = 2월 13일 모친상, 동아대병원 △**김장현** = 2월 3일 장인상, 진해연세병원 △**김종석** = 1월 14일 차녀 결혼, 허심청 △**박정문** = 3월 4일 아들 결혼, 서울 JW메리어트호텔 △**배종덕** = 2월 19일 아들 결혼, 미국 세인트폴성당 △**신병식** = 2월 15일 부친상, 분당서울대병원 △**이재성** = 2월 12일 장남 결혼,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식장 △**이한영** = 2월 18일 장녀 결혼, 뉴욕 브로드웨이장로교회

**〈25회〉**

△**송유중** = 2월 18일 아들 결혼, 혜화동성당 △**정수성** = 2월 11일 장녀 결혼, 서울 롯데호텔월드 △**좌상봉** = 롯데그룹 2012년 정기임원인사에서 '낙천(중국)기업관리유한공사 총경리'로 내정, 향후 출범할 롯데그룹 중국 HQ대표로 상해에 부임 △**문재인** =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2012년 자랑스러운 경희인상 수상 △**황기철** = 2월 25일 장남 결혼, 서울 롯데호텔월드

**〈26회〉**

△**구종순** = 2월 4일 장인상, 고양 일산병원 △**김기표** = 전 한국법제연구원장, 선문대 초빙 교수 선임 △**김상훈** = 1월 8일 모친상, 인창요양병원 △**김태규**(치과) = 1월 21일 장남 결혼, 미국 워싱턴 성광교회 △**김 형** = 강림약국 개업, 부산시 서구 충무동 재건센터 근처 △**김형국** = 부산대 나노정보소재학과 교수, 산학협력단장 임명 △**박성주** = 2월 25일 장녀 결혼, 서울 교육문화회관 △**박시환** = 전 대법관, 인하대 로스쿨 석좌교수 선임 △**설광룡** = 혜광고 교감 선임 △**이규생** = 혜광고 교장 취임, 1월 28일 모친상, 동아대병원 △**이명진** = 2월 3일 장녀 결혼, 서울 엘타워 △**이성근** = 3월 1일 딸 결혼, 서울대 연구공원 웨딩홀 △**이성호** = 2월 18일 장녀 결혼, 서울 종교교회 △**이종인** = 마산태

〈7면에 계속〉

사에 관한 토의가 있었으며 23명의 동기들이 참석하였다.

### ◇ 41회 = 정기총회

지난 2월 10일 하단 소재 '강촌훼미리타운'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이날 총회에서는 2011년 회무 · 회계 및 수지 결산의 건, 2012년 행사 계획안, 동기회 사무실 건립의 건 등이 의결되었다.

## 지역, 직능동창회 소식

### ◇ 기독동문회 = 신년총회

지난 2월 21일 부산진역 소재 협성뷔페에서 신년 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는 송수건(21회 · 경성대학교 총장) 동문의 특강이 있었다.

### ◇ 등대회 = 신년회

해운, 항만, 수산 동문의 모임인 등대회(회장 백창영, 23회, 협성해운 대표이사)의 신년회가 지난 2월 17일(금) 오후 7시 코모도호텔 해마루홀에서 열렸다.

60여명의 동문과 내빈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백 회장은 멘토링을 적극 도입, 선후배 간의 우의증진과 서로 간의 자문 역할을 극대화하기로 하는 등 올해 사업 계획을 밝혔다.

### ◇ 재 중국 산동지역동창회 = 신년회

산동지역동창회는 지난 2월 16일 중국 청도 청양 소재 '벽제본평양'에서 신년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22회부터 46회까지 선후배가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중국 총영사관 부총영사가 참석, 자리를 빛내주었다.

### ◇ 해운대지역동창회 = 정기모임

지난 1월 26일 해운대 미포 입구 '장어명가'에서 해운대지역 동문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기 모임을 가졌다.

회장 김법영(33회), 수석부회장 김두섭(34회), 부회장 모재현(35회), 사무국장 박태종(33회 · 011-855-8553)

**알림**

동기회,지역, 동호회 활동을 알려주시면 지면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연락 : 회보 편집실 / e메일 주소 : yongmanews@gmail.com**

---

봉요양병원 개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65-9, (055)299-3930 △**정수진** = 2월 25일 장녀 결혼, 서울 세종문화회관 △**정종훈** = 2월 7일 장모상, 부산대병원 △**최병석** = 1월 14일 장녀 결혼, 서울 엘타워 △**함시창** = 1월 18일 모친상, 강남세브란스병원 △**황용주** = 1월 9일 부친상, 경남 진주중앙병원

**〈27회〉**

△**권철주** = 2월 10일 부친상, 서울성모병원 △**김성수** = 커피전문점 '라바짜' 개업, 서울 선릉역 5번 출구 빅토리아 빌딩 지하 1F △**김성주** = 1월 14일 부친상, 경기도 성남중앙병원 △**김병추** = 중국 상해 대성법률사무소 상임고문 △**박병주** =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초대원장 취임 △**박승준** = 2월 18일 딸 결혼, 대구 뉴욕뉴욕 △**박영빈** = 경남은행장, 2012 연세동문 새해 인사의 밤에서 '연세를 빛낸 동문상' 수상 △**한종왕** = 2월 2일 부친상, 동아대병원 △**함시영** = 1월 18일 모친상, 강남세브란스병원

**〈28회〉**

△**김명수** = 12월 28일 부친상, 서울성모병원 △**노승만** = 12월 29일 모친상, 좋은강안병원 △**박일동** = 3월 1일 장녀 결혼, 서울 GS타워 △**서상철** = 산은금융지주 최고전략마케팅 책임자 △**이만재** = 2월 25일 장녀 결혼,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임광수** = 2월 6일 부친상, 동아대병원 △**하대용** = 2월 11일 장녀 결혼, 서산 르셀웨딩컨벤션 △**한종우** = 2월 2일 부친상, 동아대병원 △**황훈성** = 1월 10일 모친상, 창원 행복한병원

**〈29회〉**

△**권오영** = 2월 17일 모친상, 남천성당 △**김부겸** = 2월 15일 모친상,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김태수** = 2월 11일 장녀 결혼, 부산 센텀임페리얼웨딩홀 △**손 일** = 부산대 사범대학 교수, 저서 '앵글 속 지리학' 출판 △**장경모** = 2월 5일 장모상, 온종합병원 △**정순정** = 산은금융지주 상무이사 △**조상훈** = 2월 18일 장남 결혼, 해운대신일교회 △**최병오** = 1월 6일 장인상, 서울성모병원 △**최원락** = 2월 8일 부친상, 동아대병원 △**한만수** = 1월 27일 장인상, 인창요양병원

**〈30회〉**

△**김병욱** = (주)잡뉴스 헤드헌터 △**김부종** = 동아대 산학협력단 교수 △**김영훈** = 1월 2일 부친상, 고려대 안암병원 △**김욱성**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양성교육팀장 △**김정태** = (주)대우조선해양 영업설계팀 부장 △**김창근** = 1월 1일 장모상, 서울성모병원 △**박성중**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총장, 1월 6일 저서 '나눔 디자인' 출판기념회, 서울 국제전자센터 12F △**서상국** = 2월 4일 장모상, 분당서울대병원 △**송정근** = 1월 17일 모친상,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오광태** = 12월 31일 장인상, 성남 분당제생병원 △**은창용** = 1월 25일 장모상, 좋은강안병원 △**이동명** = 수학교사, 부산여고로 발령 △**이상우** = 2월 4일 딸 결혼, 서울 아모리스강남 △**임영수** = 2월 6일 부친상, 동아대병원 △**이철호** =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장 △**허영재** = 부산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기획처장 선임 △**허주호** = 'STX조선해양' 전무로 승진

**〈31회〉**

△**김병기** = 2월 4일 모친상, 좋은강안병원 △**김정관** = 전 지식경제부 차관, 서울대 초빙교수 선임 △**정정남** = 2월 4일 장녀 결혼, 호산나교회 명지비전센터

**〈32회〉**

△**권학률** = 1월 19일 모친상, 부산장례식장 △**이창국** = 1월 14일 모친상, 부산대병원 △**최종호** = 현대로템 전무이사

**〈33회〉**

△**강동주** = 2월 7일 모친상, 큰사랑요양병원 △**김원연** = 1월 11일 모친상, 해양병원 △**서길원** = 1월 8일 부친상, 괴정병원 △**송성림** = 대우조선해양 부장, 경남 거제시 능포동 633-165 △**이윤조** = 세화약품 전무이사로 승진 △**정인실** = 1월 16일 부친상, 동아대병원 △**지창근** = 부산 동구청 경제진흥과 근무 △**진병선** = 1월 24일 장인상, 괴정병원

**〈34회〉**

△**김철민** = 1월 10일 장인상, 동아대병원 △**배성산** = 1월 28일 장모상, 봉생병원 △**최인석** = 1월 23일 모친상, 부산의료원 △**하근철** =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조사팀장

**〈35회〉**

△**김영수** = 2월 11일 부친상, 좋은강안병원 △**박외병** = 안양동안경찰서장 취임 △**안종일** = 부산시 서기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윤인규** = 1월 11일 장인상, 한림대 성심병원 △**이창성** = 1월 14일 모친상, 부산대병원 △**정의석** = 1월 13일 모친상, 동아대병원 △**진효준** = 12월 24일 장모상, 부산 대동병원

**〈36회〉**

△**강현철** = 고용노동부 부산고용센터장 △**지동섭** = SK텔레콤 전략실장

**〈37회〉**

△**김재범** = 씨티은행 상무이사 △**성창수** = 2월 4일 부친상, 행복한병원 △**이호진** = 2월 5일 부친상, 동아대병원 △**허 찬** = 서울경찰청 핵안보기획단장 선임

**〈38회〉**

△**구홍택** = 용한의원 개원, 부산 사하구 당리동 304-12, (051)291-7500 △**김선양** = 2월 7일 부친상, 서울대병원 △**이상석** = 1월 27일 장인상, 부산장례식장 △**장헌기** = 1월 18일 부친상, 부산보훈병원 △**정원용** = 2월 13일 모친상, 대동병원 △**한경민** = 2월 10일 장모상, 경상대학병원

**〈39회〉**

△**정영한** = 1월 31일 장인상,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최희원** = 2월 4일 결혼, 서울 공군회관

**〈40회〉**

△**장갑구** = 1월 31일 부친상, 온종합병원

**〈41회〉**

△**조철선** = 2월 6일 부친상, 부산대병원

**〈43회〉**

△**이상준** = 수원센트럴호텔 개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2, (031)246-0011 △**조민호** = 2월 11일 결혼, 서울 헤리츠컨벤션

**〈45회〉**

△**김동규** = 1월 25일 부친상, 부산전문장례식장 △**조청래** = 2월 12일 장인상, 부산 남천성당

## 부음

▲**이영창**(8회) = 1월 14일 별세 ▲**김길홍**(15회) = 1월 25일 별세,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이익생**(15회) = 한일동클병원 원장, 12월 30일 별세, 부산 남천성당 ▲**이병현**(17회) = 세일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 1월 11일 별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이성일**(18회) = 본부자문위원, 2월 17일 별세, 부산 중앙성당 ▲**김일택**(19회) = 1월 19일 별세,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정명규**(21회) = 2월 5일 별세, 인제대 백병원 ▲**이영근**(24회) = 1월 10일 별세 ▲**이봉춘**(27회) = 남산내과 · 신경과병원 원장, 1월 14일 별세, 부산 침례병원 장례식장 ▲**김영기**(38회) = 1월 21일 별세

**〈어디서 무엇을〉과 〈부음〉 관련 제보, 투고 및 문의는 본부동창회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1-245-7551~3**

기업 하시는 동문들이 많은데도
정작 이 지면에 광고를 내주실 분은 없네요.
마감을 넘기면서까지
광고를 구하려고 수소문했으나 끝내 구하지 못해
이렇게 '백지 광고'를 내게 됐습니다.

동창회보를 사랑해주시는 독자 여러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보 편집실

## 11회 동기 3명의 미대륙횡단 자동차여행기

# 7인승 SUV로 8천km 누벼... 우정 만끽한 21일간의 여정

조동준(11회, 미국 LA거주)

지난해 7월 오랫동안 생각해온 미대륙횡단 자동차여행을 했다. 은퇴 후 2년에 걸쳐 생각해 오다가 내일이면 늦으리라 싶어서 마침내 실천에 옮긴 것이다. 혼자서 장거리여행을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어서 동행자를 구하다가 한국에 있는 배상천, 강병희 두 동기를 설득해 함께 떠나게 됐다. 이들 두 동기는 경남중고를 같이 다닌 오래된 친구다. 준비물로는 아이스박스, 3인용 텐트, 라면용 냄비, 후렛시, 여러 장의 미국지도 등이었다. 출발 전 우리 집 뒷마당에서 텐트를 쳐보는 연습도 해봤다.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절대적인 안전여행이었다. AAA에 가입하고 미리 여러가지 정보도 들었다.

### 73살 된 노인 세 명, 대륙횡단 자동차여행에 도전

마침내 7월 12일 우리는 렌트한 시보레 트레버스 7인승 SUV를 몰고 LA를 출발했다. 73살된 세 명의 노인이 미대륙횡단 자동차여행이라는 도전에 나선 것이다. 예정된 여행기간은 3주일로 잡았다. 먼저 라스베가스에 갔다가 이어 Zion국립공원, Bryce Canyon국립공원, Arches국립공원을 보고 덴버로 갔다. 덴버에서 하룻밤을 자고 우리는 7월인데도 눈이 덮인 록키산을 구경하면서 사우스 다코다주에 있는 Rapid City로 올라가서 라쉬모어 내셔널 모뉴멘트를 구경했다. 초대 미국대통령 조지 워싱톤대통령, 독립선언문을작성한 토머스 제퍼슨,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해방을 성취한 에이브러함 링컨, 그리고 파나마 운하를 만들고, 20세기 미국의 입지를 굳힌 시어도어 루즈벨트대통령 이렇게 네 사람의 얼굴조각상은 미국정신을 상징하는 조각상이다.

국립공원 출입 시에는 미국시민으로서 65세 이상이면 10달러만 내면 평생 어떤 국립공원이든 다 무료로 출입할수 있는 카드를 이용했다. 맑은 시냇물, 울창한 자연의 나무들,

조 동문 일행의 자동차여행 이동경로.

그리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또 가끔 나다니는 사슴, 노루들을 보며 국립공원을 드라이브하는 기분은 근년에 맛보지 못했던 통쾌한 것이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 한국에 있는 두 친구에게 미국지리 공부를 좀 하고 국제운전 면허증을 준비하라고 당부했었는데 알고 보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국제면허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주로 운전할 수 밖에 없게 됐는데 고속도로에서는 한국친구들이 흥미를 보여서 하루에 두시간씩 교대로 운전했다.

### 톨비 안내고 통과했다가 인터넷으로 후불하기도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카고에 무사히 도착, 대학동창인 닥터 강의 집에서 3일간 머물며 골프도 하고 끝없이 넓은 미시간호수며, 시어즈건물 등을 구경했다. John Hancock건물의 꼭대기 라운지에서 보는 바다같이 큰 미시간호수의 경치는 오래동안 남을 추억이 되었다.

시카고에서 푹 쉰 우리는 다음 행선지를 나이아가라폭포로 잡고 다시 자동차를 몰았다. 시카고 근처에서는 유료도로가 많았는데 교통표지판을 제때 읽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하는 바람에 두번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후불을 하기도 했다.

나이아가라폭포에서는 바로 캐나다로 넘어가서 구경을 하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려다가 실수로 캐나다로 다시 들어가는 바람에 두번이나 국경을 넘기도 했다. 또 캐나다와의 휴대전화 로밍문제로 온타리오에 사는 경남고 동기 미스터 리와 밤새도록 전화로 숨박꼭질을 하다가 결국 그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떠나오고 말았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40 여년 전 뉴욕주에서 살 때 와서 봤던 그대로였고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붐비는 것도 그 때나 마찬가지였다.

나이아가라폭포를 떠나 보스턴으로 가는 고속도로 I-90는 서부 고속도로와는 달리 차들로 붐볐다. 운전 도중 번개와 함께 소낙비를 만나 고속도로 위에서 차를 세우고 비가 그치기를 한동안 기다리기도 했다. 심한 비와 번개 속에서 운전한다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처음 느껴보았다.

워싱턴DC의 백악관 앞에서. 가운데가 강병희, 오른쪽이 배상천, 왼쪽이 필자.

### 휴대용 GPS 자주 고장 나 고생

이때부터 고속도로가 붐벼 한국서 온 친구들에게 더 이상 운전을 맡기지 않고 이번 여행이 끝나는 볼티모어까지 내가 혼자서 운전대를 계속 잡았다. 아무래도 이곳 미국 고속도로에는 내가 좀 더 익숙해 있을 것 같아서였다. 동부는 역시 서부에 비해서 도로가 복잡하고 오래된 길이어서 운전이 쉽지 않았다. 더구나 갖고 온 휴대용 GPS가 자주 고장이 나 운전이 더욱 어려웠다.

보스턴에서는 일행 중 한 친구의 딸과 사위가 살고 있어서 씨푸드 맛을 제대로 봤다. 또 하바드대, M.I.T 그리고 찰스강, 퀸시 마켓 등을 구경했다. 'Duck tour'라고 부르는 시티투어도 했는데 수륙양용의 버스를 타고 한 시간 동안 바다에서 보스턴시를 보는 관광도 인상에 남는다.

다음 목적지인 뉴욕으로 가면서 부터는 운전에 최고의 긴장이 오기 시작했다. 뉴욕 시내로 들어가기 전 30년 전 내가 한때 개업을 했던 Poughkeepsie에 들려 아직도 그곳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대학동창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과거 거기서 10년 가까이 살았음에도 크게 변해 낯설기만 했다. 고생 끝에 그 친구를 만나 허드슨강변의 경치 좋은 식당에서 점심을 하면서, 30년 전 추억을 반추해 보았다.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Hyde Park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생가와 박물관을 구경한 뒤 뉴욕시를 향해 떠났다.

### 뉴욕에서 두 딸 만나... 지하철 타고 구경 다녀

뉴욕시로 내려오는 도중에 웨스트포인트의 미육군사관학교에 들렀으나 9.11사건 이후로 테러위험 때문에 학교를 공개하지않아 아쉽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우리는 뉴저지의 포트 리에 사는 대학동창 집에 도착, 이곳까지 몰고 온 차를 아예 차고에 넣고는 3일 후 뉴욕을 떠날 때까지 운전을 포기했다. 짧은 시간에 이 곳의 길을 익힐 수도 없거니와 만약 조그만 사고라도 생기면 여행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대신 우리는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맨해튼의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 자유의 여신상, 유엔본부 등을 관광했다. 그 다음날에는 지하철을 타고 맨해튼으로 나와 센트럴파크,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구경했는데 박물관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저녁에는 동기인 이우인 군과 서울의대를 졸업한 윤영섭군 그리고 배광웅 동문(14회), 김형수 동문(20회) 등을 만나 32가 브로드웨이의 한국식당에서 소주도 한잔하면서 오랫만의 만남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 나의 딸 셋 중 둘이 이곳 뉴욕에서 살고 있기에 곧 결혼할 미래의 둘째사위와 또 막내딸의 남자친구와 함께 맨해튼에서 저녁을 함께 한 것도 뜻있는 추억으로 남았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사는 것이 보람된 인생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 볼티모어에서 21일간의 여행 끝내... 건강 확인한 여행

3일간의 뉴욕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목적지인 워싱턴 DC로 향했다. I-95 고속도로는 서부 못지않게 복잡했고 차량수가 훨씬 많은 것 같았다. 우리는 지하철에서 멀지 않고 백악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예약된 호텔로 찾아 들어갔다. 다음날에는 시티투어에 참가해 국회의사당, 백악관, 링컨기념관, 월남 전쟁기념관 그리고 한국전 기념관. 프랭클린 루즈벨트 기념관, 2차대전 전쟁기념비등을 둘러봤다. 워싱턴 메모리얼 모뉴먼트는 멀리서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고 스미스소니언 뮤지엄은 주차문제와 시간문제로 포기했는데 그것이 내내 아쉬움으로 남았다.

L.A에서 렌트한 7인승 SUV를 볼티모어공항에서 돌려주게 되어 있어서, 8월1일 저녁 공항부근 모텔에 짐을 풀고는 유명하다는 볼티모어 게를 맛보러 나갔다. 그러나 식당에서 맛 본 게는 제철이 아니어서인지 살이 없어서 옛날의 그 맛과는 달랐다. 볼티모어는 내가 45년전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영어도 미숙한 처지에 단돈 40달러를 들고 처음 밟았던 미국 땅이어서 더욱 감회가 깊었다.

그 다음날인 8월 2일 아침. 우리는 렌트한 차를 돌려주고 한국서 온 두 친구는 마이애미로, 나는 L.A로 떠나는 비행기에 각각 몸을 실었다. 세 노인이 21일간에 걸쳐 총 4,800마일, 즉 8,260km를 운전해 미대륙 횡단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우리 세 사람은 모두 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60년이란 긴 세월을 나눈 우정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운이 좋게도 사고는 한번도 없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큰 안도감과 함께 자신감과 성취감을 맛봤다.

동행한 두 친구는 마이에미와 L.A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8월9일 한 달간의 미국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이번 여행은 우리 세 사람에게 잊지 못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필자 조동준 동문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 한 뒤 도미, LA 등지에서 오랫동안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다가 몇년 전 은퇴했다. 현재 LA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남가주 경남중고 동창회의 이사장으로 있다. 조 동문과 함께 여행한 배상천 동문은 서울상대를 졸업, 제일은행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했다. 강병희 동문은 서울대 공대를 졸업, 인하공대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했다. 강병철 전 롯데감독의 친형이기도 하다. **<편집자>**

## '33산우회'가 5년 전 구덕산에 정상석을 세운 뜻은?

# "구덕산은 모교 지켜주는 고향 같은 산"

**매년 구덕산 정상석에서 시산제 올려**

1월 마지막 일요일인 지난 1월 29일 오전 11시.

모교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부산 구덕산 정상에 세워져있는 정상석 주변에서 33회 동기들의 등산모임인 '33산우회'(회장 정영학) 회원들과 그 가족 등 24명이 제수를 차려놓고 '2012년도 시산제'를 올렸다.

"유세차 단기 4345년 정월 초이렛, 서기 2012년 1월 29일인 오늘, 저희 경남고등학교 33회 동기들의 산행친목단체인 '33산우회' 회원 일동은... 산을 배우고 닮으며 그 속에서 하나가 되고자 산을 오르내린지 어언 12년, 456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경남고의 정기를 머금은 이곳 구덕산에서 감사와 고마움의 제를 올리고자 합니다."

제주인 정 회장이 낭랑한 목소리로 축문을 읽어 내려갔다. 참가자들의 표정은 엄숙했고 진지했다.

"산과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조용히 우리의 걸음을 지켜보시며 저희 33산우회의 슬로건인 '안전산행! 건강산행! 행복산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살펴주시는 산신령님이시여! 아무쪼록 바라오니 무거운 배낭을 들러맨 우리들의 어깨가 굳건하도록 힘을 주시고, 험한 능선과 골짜기를 넘나드는 우리의 두 다리가 지치지 않도록 의지를 주시고, 엉뚱한 길을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문읽기가 끝나자 회원들은 제례에 따라 술을 따르고 절을 올렸다.

**자리 찾던 중 정상 개방.. "운 좋았다"**

33산우회 회원들은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음력설 직후 첫 일요일이면 구덕산에 올라 이곳 정상석에서 시산제를 지내고 있다. 이 정상석은 33산우회가 지난 2007년 3월 4일 세운 것이다. 김법영 동문이 밝힌 정상석을 세우게 된 경위는 이렇다.

2006년 10월 8일 일요일, 추석연휴 끝 날인 이날 김법영, 김동환, 이윤조 부부 6명이 승학산을 지나 시약산으로 갔다. 시약산에서 구덕산 안부로 가는데 그동안 '항공무선표지소'에 의해 출입이 통제됐던 구덕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을 봤다. 바리케이드가 치워지고 없었고 출입통제 팻말도 없었다. 구덕산 정상이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개방된 것이었다. 이들은 이날 처음으로 구덕산 정상을 밟았다. 오랫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탓에 거기엔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구덕산 정상에 선 이들은 "바로 여기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한다. 당시 정종훈 산행대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부산 근교의 적당한 산에 '33산우회' 이름으로 정상석을 하나 세우자고 의견을 모았으나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있던 참이었다. 부산 근교의 산들은 대부분 정상마다 이미 이런저런 산악회에서 세운 정상석이 있는데다가 그렇다고 먼 곳에 있는 아무 산에다 정상석을 세울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날 구덕산 정상에 서는 순간 눈 아래로 모교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오고 경고의 기상이 서려있는 이곳이야말로 적지라는 판단이 선 것이다. 오랫동안 출입이 통제돼왔기에 구덕산 정상에는 그 때까지 어떤 표지석도 없이 텅 비어 있는 상태. 운이 좋았던 것이다. 마치 구덕산 정상이 '겡고 산사나이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을 막아왔던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것이다.

구덕산을 내려 온 이들은 그 다음달 황령산 정기등반 후 회원 19명이 모인 자리에서 익년 정월 시산제에 맞춰 구덕산에 정상석을 세우기로 의결하고 바로 준비에 들어갔다. 그 다음해인 2007년 2월 25일 (일요일) 구덕산에 다시 올라 정상표지석 세울 장소와 방향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는 김해에 있는 김해석재에 표지석 제작을 맡겼다. 글씨는 김종택 동기가 썼다.

이렇게 해서 2007년 3월 4일 (일요일) 구덕산 정상에 정상표지석을 세우고 첫 시산제를 올리게 됐다는 것이다.

**'경남고' 새겨진 정상석...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

구덕산 정상석은 경남고쪽으로 향한 면에 '九德山 2007. 3. 4'이라는 글이, 그 반대쪽 면에는 '구덕산 565m'라고 새겨져있고 오른쪽 측면에는 '경남고 33산우회', 왼쪽 측면에는 '건강, 안전, 행복 산행'이란 글이 각각 새겨져 있다.

구덕산 정상의 높이를 565m로 새긴 것은 서구청을 통해 국립지리원에 문의한 결과 항공무선표지소를 건설한다고 정상부를 깎아내기 전의 구덕산의 원래 높이가 565m이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의 구덕산 정상의 높이는 545.8m인 것 같다는 것이 김법영 동문의 말이다.

요즘 구덕산 정상에 오르는 등산객들은 누구나 이 정상석에서 발길을 멈추고 산 아래를 바라본다. 거기엔 모교의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어떤 이는 정상석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기도 한다. 구덕산 정상석은 일반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정상임을 알려주는 단순한 표지석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동창회의 미드필드'인 33회 동문들이 세웠고 거기에 '경남고 33산우회'라는 글이 뚜렷이 새겨져 있기에 그 정상석은 우리 동문들에게는 남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 모교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구덕산 정상에 우뚝 서 있는 이 정상석이야말로 구덕산이 모교와 우리 동문들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고향과도 같은 산이며 구덕산의 주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세상에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유명 편집위원(29회)>

'33산우회' 회원들이 구덕산 정상석 앞에서 2012년도 시산제를 지낸 뒤 기념촬영을 했다.

정상석 모습. 옆면에 '경남고 33산우회'라고 새겨져 있다.

**투고**

# '똥통학교'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요

**최승호(36회, 사하구 동창회 사무국장)**

어떤 선배님이 공식석상에서 "우리 경남고등학교가 '똥통 학교'가 다 되었다"고 말해 참석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또 다른 선배님은 "정치인을 많이 배출한 학교라는 이미지를 가진 모교가 지금은 문화계, 학계, 교육계, 종교계, 경제계 등 다방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자찬하며 "명문고란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동창회 일을 오래도록 해온 두 선배님들의 말씀이시니 모두 틀린 말은 아닐 것이나 모교를 두고 나오는 '똥통학교'와 '명문고'라는 두 가지 평가가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솔직히 말해 나는 모교를 두고 '똥통학교' 운운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다. 고교평준화 이후 서울대 등의 진학률이 크게 떨어지자 이에 실망한 선배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의 모교를 '똥통학교'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고교평준화 이후 기수로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매우 속이 상한다.

옛날의 명성을 되뇌며 서울대 진학타령을 하시는 선배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이제는 모교에 대한 평가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똥통학교'냐 '명문고'냐에 대한 평가는 명문대 진학률이나 유명인의 배출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도 중요하겠지만 재학생들이 얼마나 창의적인가, 졸업생들은 얼마나 진취적이며 성실한가라는 측면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지역사회, 국가와 세계에 대하여 제대로 책임감은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실천적인가, 얼마나 화합을 잘 하는가 등등이 평가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우리 동문들 중에서 몇몇 이름난 사람들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전체 동문들의 인격수준과 생활수준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다.

우리 사하구동창회에 가입해있는 동문들 중에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나 그 분들만이 우리 사하구 동창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삶에 각자 성실하고 어려운 일에는 동문 간 화합하고 말 없는 희생과 봉사를 아까지 않는 이름 없는 동문들이 우리 사하구 동창회를 사실상 대표하는 것이다.

세상에 혼자 잘난 것은 없다. 또한 혼자 못난 것도 없다. 모두가 어우러져야 잘나고 못난 맛이 난다. 잘난 것은 못난 사람 덕분이고 보다 못난 사람은 잘난 사람을 보고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이다. 동문 형제간에 다른 잣대로 보태고 뺄 것이 없는 것이다.

## 인물 포커스

###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 정홍원 동문(17회)

# 경남중 졸업, "돈 안 드는 학교로 간다"며 진주사범 진학

## 외유내강형의 강직한 검사출신... 법무장관 물망에 오르기도

정홍원 동문은 경남중을 졸업(17회)한 뒤 진주사범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당시 부산의 자형집에서 기숙하며 경남중에 다녔던 그는 "학비가 안 드는 학교로 간다"며 진주사범을 택했다고 한다.

사회에 나와서는 경남중고 동기들과 자주 어울렸고 누구보다 동창회에도 열성을 보여왔다.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14회)에 합격, 약 30년간 검찰에 몸담고 있으면서 바르고 강직해 검찰 선후배들로부터 신망이 높았다. 외유내강의 선비 타입으로 법무장관에 몇 번이나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이철희 · 장영자 사기사건을 비롯해 각종 권력형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1991년 대검 중앙수사부 3과장 시절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컴퓨터 해커를 적발했고 서울지검 남부지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민원인 후견인 제도를 도입했다.

2004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처음 발표했고 선관위에서 농 · 수 · 축산업협회 조합장 선거와 국립대 총장 선거, 산림조합장 선거, 주민투표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했다. 특히 2006년 5 · 31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매니페스토 선거운동 방식을 도입해 우리나라 선거문화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호평을 받았다.

정홍원 동문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전국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마을) 45곳에 공단 지소를 설치했고 이동법률상담차량을 가동해 법률취약계층들이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09년부터 서울과 대구, 부산에 개인회생 · 파산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신용불량자 및 임금체불 근로자 등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했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에 선임되자 "쓴 잔도 마시는 용기와 신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위원장직을 수락한 배경을 설명했다.

## ■ 포토갤러리

### "산신령님, 조그만 정성으로 술과 떡을 올리오니..."

14회 산악회는 임진년 첫 산행으로 지난 1월 15일 부산 금정산에 올라가 시산제를 올렸다. 북문 산장 옆 빈터에 자리를 잡고 제물을 차린 후 향을 피웠다. 이수남 동기가 엄숙하게 제문을 읽었다.

"유세차 임진년 새해 1월 15일,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 고당봉 아래 북문 광장에서 천지신명과 금정산 신령님께 엎드려 비옵니다. 새해에도 자연의 오묘한 순리를 터득하면서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산신령님께서 두루 보살펴 주시옵고...(중략) 이제 저희들이 조그만 정성으로 술과 떡을 준비하여 신령님께 올리오니 흔쾌히 받아 주소서."

이어 금정산 고당봉을 향해 고수레를 하고 떡과 돼지고기, 과일로 음복주를 한 잔씩하고 하산했다. **<반미태(14회)>**

**◇ <포토갤러리>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사진을 보내주시면 게재해드립니다. 보낼 곳 = yongmanews@gmail.com**

## 인물 동정

### 이용흠 동문(19회)
### 부산대총동문회 회장 취임

이용흠 동문(19회, 본부등창회 고문, 일신설계 대표)이 지난 1월 30일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2012년도 정기총회에서 제36대 부산대총동문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동문은 약 8백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모임에서 취임사를 통해 "각계에서 활동 중인 동문들을 묶어주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 명실공히 18만 부산대동문들을 대표하는 총동문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노기태 동문(20회)
### 동명대상 수상

노기태 동문(20회,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지난 1월 5일 제4회 동명대상(공공부문)을 받았다. 동명대상은 부산 향토기업인 옛 동명목재 창업주 고 강석진 회장의 도전과 창의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든 상이다. 노 동문은 국내 최초로 항만부분에 VE(가치경영)제도를 적용해 지난해 1,300억원의 건설비용을 절감하는 등 부산항만공사 기반 정립 및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 등에 기여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 이주홍 동문(23회)
### ㈜범한엔지니어링 회장 선임

이주홍 동문(23회)이 지난 1월 31일 ㈜범한엔지니어링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 동문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태영건설에 입사해 태영건설 부사장,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사장 등을 역임했다.

### 서기석 동문(26회)
### 수원지방법원장에 부임

서기석 동문(26회)이 지난 2월 16일자로 수원지방법원장에 부임했다.

서 동문은 경남 함양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9년 제21회 사법고시에 합격,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 권명보 동문(27회)
### 부산시 교통문화연수원장 취임

권명보 동문(27회)이 최근 부산시 교통문화연수원장에 취임했다.

권 동문은 지난해 6월 국제신문 사장으로 재임됐으나 내부 알력으로 물러났었다.

### 박종국 동문(27회)
### 여천NCC 대표이사 선임

박종국 동문(27회)이 지난 1월 2일 여천NCC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박 동문은 서울대를 나와 대림산업에서 기획실장과 사장 등을 지냈다.

### 김기섭 동문(30회)
### 부산대학교 총장 취임식

부산대총장으로 뽑힌 김기섭 동문(30회)이 지난 2월 9일 오전 교내 10.16 기념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김 동문은 취임사에서 부산대를 부산과 동남권 지역 사회와 함께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기존의 형식적인 행사에서 탈피해 각계의 영상메시지와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한 합창 공연 등 소통을 주제로한 다양한 이벤트로 꾸며져 눈길을 끌었다.

### 윤인태 동문(30회)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인태 동문(30회)이 지난 2월 16일자로 창원지방법원장에서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겨 재판업무에 복귀했다.

### 이해정 동문(30회)
### (주) SKC 에어가스 대표로 부임

이해정 동문(30회)이 지난 1월 15일자로 (주)SKC 에어가스 대표로 부임했다. 이 동문은 SKC 부사장으로 1년간 일본에서 연수를 한 뒤 지난해 말 귀국했다.

(주)SKC 에어가스는 울산에 있는 회사로 일본과 합작으로 2년 전에 설립됐으며 산소, 질소, 아르곤, 특수가스 등을 생산하는 회사다.

### 박규배 동문(37회)
### 국민은행 일산PB센터장으로 발령

박규배 동문(37회)이 지난 1월 10일자로 KB국민은행 일산PB센터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박 동문은 그동안 KB국민은행 해운대PB센터장에서 일해왔다. 전화 031-925-1556 / 010-7533-1028

## 마라톤 풀코스 125번 완주한 이철의 동문(21회)

# "마라톤은 수행... 달리면서 마음 비운다"

지난 2월 5일 오후 3시경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제9회 동계 풀코스 마라톤 대회>가 막 끝나고 있었다. 일찍 골인지점을 통과한 마라토너들이 지친 표정으로 짐을 챙겨 하나 둘 자리를 떠나고 있었다. '마지막 주자가 골인지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는 장내방송이 들려왔을 때 이철의 동문(21회)이 다가 왔다. 조금 전 풀코스 완주를 끝낸 사람 같지 않게 그의 표정은 밝았고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는 이날 '125번째 마라톤 풀코스 완주' 라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 2003년 3월 처음으로 풀코스를 완주한 이래 만 9년 만의 일이다. 9년 동안 125번이나 마라톤 풀코스 완주를 했으니 매달 한번 이상씩 풀코스를 뛴 셈. 이것은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기록이 아니다. 더구나 환갑을 훌쩍 넘긴 60중반의 나이가 아닌가.

### 고통 속에서 '말 할 수 없는 쾌감' 느껴

– 42㎞가 넘는 거리를 달리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은가.

"왜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고통의 연속이다. 그러나 고통을 참으며 자신과 싸우며 달리다보면 어느 시점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그걸 러너스 하이(runner's high)라고 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마약과 같은 것이다. 그것에 중독됐다고 할까, 이제는 달리지 않으면 몸이 아파오는 그런 지경이 됐다."

지난 1월8일 〈제10회 이봉주 훈련 코스 고성공룡마라톤대회〉에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는 이 동문.

이 동문은 내과의사다.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이철의 내과' 라는 간판을 걸고 개업한 지 30년이 다 돼 간다. 그러나 마라톤을 시작한 후부터 병원 일은 '부업' 처럽 되고 말았다. 주말마다 경마회(회장 오재동, 18회) 회원들과 함께 마라톤을 하거나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마라톤대회 마다 빠짐없이 참가하느라고 병원 일은 자연히 뒷전이 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마라톤에 미친 사람이다. 역시 의사인 부인에게도 마라톤을 권해 함께 마라톤을 즐긴다. 사위를 봤을 때는 마라톤 풀코스 완주를 첫째 조건으로 내걸어 결혼을 승낙했고 며느리를 볼 때도 "하프 코스를 달려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 왜 달리나.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다. 내가 의사지만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20년 등산 경력 버리고 9년 전부터 마라톤 시작

이 동문은 마라톤을 하기 전에는 등산마니아였다. 그가 등산을 하게 된 것은 의대를 졸업하고 막 전문의가 되고나서였다. 어느 날 설악산을 오르다 과신했던 체력(그는 대학시절 야구부의 4번 타자였다)이 바닥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그 때쯤 통풍이 왔다. 발목의 복숭아 뼈가 결절되기까지 했다. 그 고통으로 꼬박 밤을 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는 또 경남고 다닐 때부터 시력이 극도로 나빴다. 시력이 −13디옵터(−6디옵터가 0.1이다)여서 어지간한 칠판 글씨는 보이지도 않았고, 두꺼운 하드 렌즈로 인한 고통이 컸다. 의대를 졸업하고도 군의관이 되지 못했던 것도 시력 때문이었다. 이런저런 나빠진 몸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겠다고 결심하고 주말마다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북한산에서 호남정맥, 한북정맥, 백두대간까지 안 다닌 곳이 없었다. 야간 산행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20년을 주말마다 산을 오르다보니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졌다. 그 덕에 서울시의사회산악회 등반대장까지 지냈다. 그러나 2001년 의사인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은 그를 패닉 상태로 몰아갔다. 더 이상 어떤 산도 위안이 되지 못했다. 낮았던 혈압도 150을 웃돌았다. 안되겠다 싶어서 등산 대신에 마라톤을 택했다. 몸을 더 가혹하게 다뤄야 몸도 마음도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식이요법과 운동만이 몸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의사로서 나도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하고 있으나 사실 약만으로는 근본 치료가 안된다. 운동을 통해 몸이 스스로 병을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은 병을 일단 강제로 내려누르는 몽둥이 역할만 할 뿐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아니다."

### 마라톤으로 건강 되찾고 오래된 열등의식에서도 벗어나

처음 마라톤을 시작하면서 오래 동안 등산으로 체력을 다졌으니 괜찮겠지 했으나 그게 아니었다. 10㎞를 뛰고는 오한과 몸살로 며칠을 끙끙 앓았다. 그래도 몸이 곧 적응하겠지 하는 믿음으로 이를 악물고 달렸다. 마침내 2003년 3월 첫 완주를 했다. 기록은 4시간 6분. 이 때 처음으로 마라톤이 주는 "더 바랄 것이 없는 텅 빈 충만감"을 느꼈고, 그 사이에 혈압은 정상으로 내려왔다.

지난 2010년 11월 7일 마라톤 풀코스 100회 완주 때 경마회 회원들과 함께. 왼쪽에서 세 번째가 이 동문.

그 뒤 2008년 춘천마라톤대회에서 '서브4' (4시간 이내에 풀코스를 완주하는 것)를 달성했고 그 이듬해인 2009년 모든 마라토너들의 꿈인 보스턴마라톤대회에 출전, 완주했다. 그의 풀코스 완주는 계속됐고 마침내 지난 2010년 11월 7일 서울에서 열린 <2010 중앙서울마라톤>에서 100회 풀코스 완주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뜻밖에도 그는 "오래 동안 열등의식에 시달려 왔었다"고 실토했다. 부산서중에서 경남고에 진학할 때 입시에 실패, 재수를 했고, 경남고에서 부산의대에 진학할 때도 재수를 했다. 경남고 시절 친하게 지냈던 민한식, 오거돈 같은 동기들이 모두 서울대에 갔는데 자신은 부산의대에도 떨어지자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 괜히 경남고에 들어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 틈에서 정신적으로 시달렸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시력까지 나빴으니 열등의식이 더욱 더 깊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라톤 풀코스 완주 기록을 쌓아가면서 이런 열등의식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마라톤 풀코스 42㎞의 길은 인생 80년의 길과 같다. 거기에는 사춘기의 설렘과 청년기의 황홀함, 중년기의 시련과 고통 그리고 노년기의 무욕의 평화가 다 들어 있다. 삶은 단 한번 뿐이지만 마라톤을 통해 우리는 여러 번의 인생을 살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마라톤에는 세속적인 승부 따윈 없다. 오로지 자신을 혹독하게 다그치는 수행(修行)만 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마침내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노인처럼, 혹은 니체의 그 '초인' 처럼 자신을 비움으로써 얻는 환희와 승리를 맛 볼 수 있다."

이 동문은 "오늘의 완주는 다음 마라톤의 준비"라며 "2주 뒤에 있는 <고구려마라톤대회>가 벌써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이창기 객원편집위원(시인)>**

수정횟집

동문대환영!!

동기모임, 결혼피로연, 칠순잔치, 돌잔치 등 각종 모임

주 차 장 : 수변공원 공영주차장 및 마린리치타워 파킹

김 경 진 (27회 · 동창회 총무단 협의회 회장)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10-43 민락동 수변공원 공영주차장 앞

예약문의 (051) 757-1316, 011-572-5200

## 평생 산에 미쳐 살아온 '산사나이' 오기현 동문(20회)

#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한 산에는 가야지요"

경남고 출신 중에서 기인(奇人)을 꼽는다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오기현 동문(20회)일 것이다. '오똥개'라는 별명으로 더 알려진 그는 평생 산에 미쳐 살아온 '산사나이'다. 우리나라 산이라면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나이 60중반을 넘어선 지금도 자주 산행에 나선다.

지난해 네팔 안나푸르나에 트레킹 갔을 때의 오 동문. 그는 '재미가 있기에 산에 간다'고 말한다.

### "오똥개 모르면 경고생 아니다" 말 나돌 만큼 유명

– 하필이면 별명이 왜 '똥개'인가.

"그것은 별명이 아니라 원래 집에서 부른 내 어릴 적 이름이었다. 위로 누님 두 분과 형이 있었는데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자 모친 친구들이 '오래 살아라'며 천한 이름을 붙여 준 것이다. 내가 동신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 때부터 친구들이 나를 '똥개'라고 불렀던 것이 경남중고까지 이어진 것이다."

– 모두들 '오기현'이라는 이름을 놔두고 '오똥개'라고 부른다. 기분 나쁘지는 않은가.

"(웃으며) 기분 나쁜 것 전혀 없다. 하도 듣다보니 '오똥개'가 '오기현'보다 더 자연스럽게 들리기도 한다. 경남고 다닐 때 '교장 이름은 몰라도 되지만 오똥개를 모르면 경고생이 아니다'는 말이 있었다. 내가 여러 가지로 '20회 대표'였다."

키가 180cm가 넘는 거구에 경남고 때 핸드볼선수에 응원단장까지 맡았던 데다가 산악반 활동에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이름까지 '똥개'였으니 유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

오 동문은 경남고로 진학하면서 '경남고에 가면 등산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경남중 때 영국의 탐험가 로버트 P 스캇이 쓴 남극탐험기를 읽고 크게 감동을 받고 탐험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등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경남고에 진학하니 마침 김한모 동문(16회) 등이 주축이 돼 만든 경남고산악반이 있었다.

### 주말마다 구봉산 올라 텐트 친 '산 걸벙이들'

부산에서 처음으로 생긴 고교산악부가 바로 경남고산악반이었다. 그 경고산악반이 3학년(19회)의 이창흠, 김봉호, 이용만, 연두현(작고) 등과 2학년(20회)의 '오똥개' 등이 주축이 되면서 전성기를 맞았다고 한다. 반원 숫자가 많아졌고 매달 월례등반을 했다. 월례등반과 여름방학 장기등반, 춘계방학을 이용한 춘계등반을 정기적으로 했다. 또 매 주말마다 학교 뒤편 구봉산에 올라 텐트를 치고 1박하면서 '구봉암장'에서 바위타기 훈련도 열심히 했다는 것. 오 동문을 중심으로 한 산악반의 2학년 6명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9박10일의 지리산종주를 했던 것도 이 때였다. 고교산악부가 지리산종주를 한 것은 경남고산악반이 처음이었다.

모교를 찾은 오기현 동문. 평생 산에 미쳐 살아 온 '진짜 산사나이'다.

당시 '제1회 부산시장기쟁탈 학생등산대회'가 금정산에서 1박2일로 있었는데 3학년 이창흠, 석용태 등과 2학년 오기현, 최진송 등이 이 대회에 출전,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인 가운데 산악반원들이 우승기를 학교측에 반환하는 식을 성대하게 가졌는데 학생들이 '와' 하고 소리내 웃었다고 한다. 야구나 핸드볼에서 우승해서 우승기를 학교에 전달하는 것은 봐 왔어도 등산에서 우승했다고 하니 '등산도 시합을 다 하는가' 라며 웃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 경남고 학생들은 주말마다 떼 지어 구봉산에 가서 텐트치고 자는 산악반 반원들을 '산 걸벙이들'이라고 불렀다. 그럼에도 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 경남고 때 공부는 별로였겠다.

"(웃으며)공부와는 담 쌓고 지냈다. 산에 미쳐 지냈으니 공부할 수가 있었겠나."

그는 핸드볼 특기생으로 경희대에서 오라고 했으나 서울엔 안 간다며 동아대 체육학과로 진학했다.

### "구덕산우회는 동문단체들 중 가장 끈적끈적한 모임"

경남고 졸업 후에는 경남고산악반 OB들의 모임인 '구덕산우회'를 중심으로 지금껏 산행을 계속해오고 있다. 구덕산우회는 1997년 오 동문을 산행대장으로 19개월만에 백두대간 종주를 끝냈고 일본 북알프스등반, 2001년 히말라야 아일랜드 피크 등 해외등반도 했다. 50년에 가까운 긴 역사를 자랑하는 구덕산우회는 수많은 우리 동문의 모임들 중에서도 가장 '끈쩍끈적한' 모임으로 소문나 있다. 의리에 죽고 사는 '산 걸벙이들'이다.

– 평생 직업을 갖지 않고 산만 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껄껄 웃으며) 꼭 그런 건 아니고... 조금씩이긴 하지만 사실 몇 번 직장생활을 하기는 했다. 첫 직장으로 서울에서 무역회사에 3년 정도 다녔다. 그러다가 무리한 산행으로 척추를 다쳐 그만 두게 됐다. 그 후에도 2년씩 두 번이나 직장생활을 했으나 산 타느라고 그만 뒀다. 가정을 꾸려나가느라고 아내가 고생 많았다."

20대 때 히말라야에 가는 것이 꿈이었던 오 동문은 히말라야 원정등반 준비를 위해 무리하게 훈련을 하다가 척추를 다쳐 두 번이나 척추수술을 해야 했다. 이로 인해 8, 9년간 산행을 중단한 것을 빼고는 계속 산행을 해오고 있다.

### 가장 좋아하는 산은 지리산... 2백번 넘게 종주

– 지금까지 다녀본 우리나라 산 중에서 어느 산이 제일 좋던가.

"그야 단연 지리산이다. 설악산은 스케일은 크지 않으나 아름답고 지리산은 스케일도 크고 아름답다."

그는 지리산 종주를 무려 200번 넘게 했다. 어떤 땐 지리산 종주를 한 해에 16번이나 하기도 했다. 200번이 넘는 지리산 종주에서 절반 정도는 혼자였다. 혼자서 지리산 종주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그는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언제든 훌쩍 떠날 수 있고 산행 중에는 어디서든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으면 가는 '혼자만의 자유'가 좋아서라고 했다.

– 지리산의 어떤 점이 좋은가.

"지리산에 들어가면 웬지 몸에 기(氣)를 받는 느낌이 든다. 어떤 땐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걱정하면서 등반을 시작했다가도 일단 지리산에 들어가면 몸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낀곤 한다."

그가 지리산 종주에서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는 노고단에서 5시간 정도 산행을 하면 나오는 '총각샘'과 덕평봉을 지나면 나오는 '무명봉'이라는 곳이다. 이 두 장소에서 보는 경치가 지리산에서 보는 경치 중 압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 산에는 왜 가는가.

"남들은 이런저런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나는 그런 건 잘 모른다. 나는 재미가 있기에 산에 간다. 우리 집사람은 '당신은 배낭만 메면 얼굴에 신바람이 난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해 동기인 양승태 동문 등과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50여일간 트레킹을 했다. 이어 미국 존 뮤어 트레일에 트레킹을 갔다가 양 동문이 대법원장 임명통보를 받는 바람에 1주일만에 트레킹을 중단했다. 그래서 존 뮤어 트레일을 완주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까운 시일 내 해내야 하는 숙제'로 남아있다.

그는 등산을 하기 위한 준비로 평소 많이 걷는다. 어지간한 거리는 차를 타지 않는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한 계속 산행을 하겠다는 것이 그의 각오다.

**<김차웅(19회)>**

恩師列傳 ⑧ / 민성기 선생님

# 로맨틱 러브 스토리로 관심 끈 미남 선생님

허 홍 욱
(19회, 전 부산대 교수)

민성기 선생님에 대한 나의 기억은 경남고 입학식에서부터 시작된다. 경남중 교복의 쌍백선을 떼고 경남고에 입학한 것이 1962년이었다.

입학식에서 교장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선생님들을 소개했는데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유독 한 분이 눈에 띄었다. 그 분이 민성기 선생님이었다. 민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키가 월등히 크셨고(나중에 알게 됐지만 당시로서는 큰 키인 178cm였다) 미남형이었는데다가 무엇보다 한쪽 다리를 절었기에 우리들의 시선을 끌게 됐던 것이다. 거기다가 민 선생님은 경남고 제1회 졸업생으로 모교에서 재직 중이라는 소개 말씀이 뒤따랐다. 선생님이자 학교선배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민 선생님은 당장 우리들에게 친근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여학생 목숨 구하고 다리 다쳐... 러브 스토리에 존경심**

그런데 민 선생님에 대해 더욱 더 깊은 관심과 존경심을 갖게 한 이야기가 나돌았다. 그것은 선생님의 절뚝거리는 다리에 얽힌 러브 스토리였다. 당시 우리들 사이에 퍼졌던 소문은 이랬다. 김해 대저면 소덕리에서 부농의 아들로 태어난 선생님은 경남중에 진학했고 매일 구포에서 열차로 통학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열차로 통학하던 중 어느 날 한 경남여중 1학년생이 철로에서 기차에 치일 위기에 빠지자 용감무쌍하게 나서서 그 여학생의 목숨을 구해내고 자신은 그만 한 쪽 다리를 잃고 말았다는 것.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중에 인연이 닿아 동갑인 그 여학생과 결혼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로맨틱하고 영웅적인 이야기인가. 그 이야기는 당시 사춘기였던 우리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다. 우리들은,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각자 그 러브 스토리에 자신을 대입해 상상의 날개를 폈고 '아, 만약 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 여학생을 위해 한쪽 다리쯤은...' 이라는 엉뚱한 생각까지도 하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존경심을 품었던 선생님과 교실에서 만난 것은 2학년 때 세계사 시간에서였다. 일주일에 단 두 시간뿐이었던 세계사 수업은 동양사에서 서양사까지를 두루 훑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사는 국어, 영어, 수학에 비해서는 배점이 너무 적어 수업에 열중하는 동급생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연방 혀로 입술 축이며 강의... 그 모습 눈에 선해**

선생님은 수업 중에 우리들에게 역사적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나게 가르쳐 주었다. 진시황의 고대중국의 통치사, 징기스칸의 중국 통일에 이은 세계 정복사, 하루에 4시간만 자고서도 프랑스 황제가 되어 세계정벌의 야망을 키웠던 나폴레옹의 이야기,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건축물들의 이야기 등을 열성적으로 풀어놓았다. 우리들에게 호연지기를 심어주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차분한 목소리로 강의를 하시면서 연방 혀로 입술에 침을 바르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각난다.

내가 3학년이 되던 해 민 선생님은 10년간의 모교에서의 교사생활을 끝내고 부산대학교 교수로 떠났다. 선생님과 다시 만난 것은 내가 군에서 제대하고 대학원을 수료하여 조교로 부산대에서 근무하면서 부터였다.

함께 근무하면서 보니 선생님은 따끈한 정종을 엄청 좋아하셨고 두주불사였다. 다들 음주 후에는 시끌벅적하기가 다반사지만 선생님은 언제나 과묵했다. 남을 흉보는 말은 일절 하지 않고 동료들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주시는 끈기를 가지고 계셨다.

**사모님에게서 소문 진상 듣고는 크게 실망**

74년부터 부산대, 동아대, 경성대, 동의대, 수산대(현 부경대학교), 해양대, 울산대에서 근무하는 경남고 동문들이 매년 친목 야구대회를 열었는데 선생님은 매번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한번은 부산대에서 야구시합을 하고는 동래 온천장에 있는 대성관에서 모두 함께 목욕을 하는 자리에서 선생님이 우리들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의족을 신는 것을 보았다. 사실 그 때 나는 선생님에게 불편한 다리에 얽힌 러브 스토리에 대해 묻고 싶었으나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그 후 언젠가 선생님 댁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틈을 봐서 사모님에게 슬쩍 선생님의 다리절단사고에 대해 여쭈어봤다. 사모님도 그 소문에 대해 알고 계시는 듯 웃으면서 그 일에 대해 말해주었다. 진상을 듣고 보니 약간 실망스러웠다. 사고 경위는 이랬다. 중학교 1학년이던 6월 어느 날, 구포역에서 아침 6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야했는데 구포역에 도착했을 때는 기차가 막 떠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기차를 놓치면 지각한다는 생각에서 무조건 달려가 기차 난간을 붙잡았으나 곧 힘이 부쳐 떨어지면서 한 쪽 다리가 기차바퀴에 말려 들어갔다는 것. 결국 경남여중생의 목숨을 구한 이야기나 또 나중에 그녀와의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고교 시절부터 우리들의 가슴을 적셔왔던 선생님의 사고에 얽힌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는 없었다. 사모님은 선생님과 동갑이긴 하나 경남여중이 아닌 부산여중을 나왔다고 했다. 그 때 차라리 묻지 말 것을 그랬다 싶은 생각이 지금도 든다. 선생님의 전설적인 러브 스토리를 믿고 기억하고 있는 많은 동문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한중 고대농경사' 전공한 선생님에게서 도움 받아**

선생님과는 1982년 일본에서 만난 일이 있다. 그 당시 나는 교토대학에서 유학 중이었다. 신칸센을 타고 도쿄에서 오신다는 전갈을 받고 역으로 마중을 나갔는데 불편하신 몸으로 혼자서 큰 가방을 끌고 오셨다. 그 가방이 하도 무겁기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고 여쭈었더니 동경대 근처의 헌 책방에서 어렵게 구하신 고서적들이라고 했다. 선생님은 이어 나와 함께 교토와 오사카를 2박3일간 여행하면서도 대학근처의 책방에서 헌 책을 또 많이 구입했다. 숙소에서 그 많은 책들을 짐으로 꾸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흡족해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민성기 은사님의 최근 모습

선생님은 내가 메밀을 재료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농사직설>에 나와 있는 메밀에 대한 부분을 복사해서 보내주셨다. 그때서야 나는 선생님이 사학자로서는 드물게 '우리나라와 중국의 고대 농경사'를 전공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선생님은 그때 쯤 눌원문화상을 받으신 것으로 기억된다.

최근 어렵게 약속을 드리고 선생님 댁을 방문했더니 선생님은 그 사이에 부쩍 늙으시고 기억력도 쇠퇴해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무척 아팠다. 은사님! 박주 한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 43년째 수행 정진중인 허정 스님(속명 허태정, 12회)

# "내가 목탁 안치고 염불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동문으로 출가한 지 올해로 43년째인 허정 스님(속명 허태정, 12회)은 특이한 스님이다. 출가 직후부터 우리나라 절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행태들이 마음에 들지 않자 어느 한 절에 안주하는 대신 평생 이 절 저 절을 다니며 오로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정진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는 목탁을 치지 않고 염불도 외우지 않는다.

지난 1월 중순 경남 하동군 고전면 소재 '신월정사'에서 그를 만났다. 신월정사는 요즘 그가 머물며 정진하고 있는 남방불교(근본불교) 계통의 절. 누더기에 가까운 가사를 입고 머리엔 보온용 털실모자를 쓴 그에게서 수행자로서의 엄격함과 함께 소박하고 소탈함이 묻어 나왔다. 속세를 떠나사는 그도 모교와 동기생들 이야기가 나오자 금방 얼굴이 펴지며 어린아이처럼 반가워했다. 우리는 '서로 계급장을 떼고' 동문 선후배로서 마주앉아 녹차를 마시며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 조선대 중퇴하고 서른살에 범어사에서 사미계 받아

– 어쩌다가 스님의 길을 걷게 됐나.

"글쎄, 세속적으로 말하면 운명적이었다고 할까. 하여튼 출가하기 전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뼈 속 깊이 새겨졌다. 그 때는 삶 자체가 무의미했다. 그래서 출가하게 됐다."

그는 김해중학교를 졸업하고 경남고에 입학했다. 그 해 전체 입학생 중 24등으로 합격했을 만큼 성적이 좋았다. 졸업할 즈음 가까운 동기들은 서울대 등으로 진학했으나 그는 '전액 장학금'이라는 유혹에 못 이겨 엉뚱하게도 전남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 국문학과에 진학한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 조선대에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했다. 경상도말을 하는 그는 캠퍼스에서 이방인이었다. 친구도 없이 낯선 곳에서 대학생활을 하다가 결국 더 버티지 못하고 3학년 때 중퇴하고 만다. 그러고는 중등교사자격시험을 거쳐 교사자격증을 땄으나 바로 군 입대통지를 받았다. 만기제대 후에 경남 남해에서 중학교 영어선생을 했다. 2년 정도 교사로 일하다가 어느 날 출가하게 된다. 나이 서른이던 1968년 부산 범어사에서 사미계를 받았다. 그리고 3년 뒤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 출가하니까 마음이 달라지던가.

"마음이 비로소 편해지면서 행복감을 느꼈다. 그 전에는 어딜 가도 불안했고 안주하지 못했는데 출가하자 하루하루가 즐거워졌다."

그는 "아마도 내가 전생에 출가했던 전력이 있었기에 중이 되자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던 모양"이라며 웃었다.

### 초기불교경전인 아함경에 심취.. 수행에만 몰두

– 목탁을 치지 않고 염불도 하지 않는다는데...

"그렇다. 출가해보니 우리나라 절들이 초기불교(근본불교)의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나 있음을 알게 됐다. 비구는 무엇보다 수행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우리나라 절들은 대체로 수행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풍토다. 더구나 기복(祈福)불교에 치중해 절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목탁치고 염불 외우는 것은 기복을 위한 제식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출가한지 1년 되던 해 불국사에 있으면서 아함경(阿含經)을 처음 읽고 금방 심취하게 된다. 아함경은 가장 초기에 완성된 경전 중의 하나로 초기불교의 근본사상인 4제(四諦)·8정도(八正道)·12인연(十二因緣) 등의 교리를 담고 있다. 남방불교(근본불교 또는 상좌부불교로 부르기도 한다)는 주로 아함경에 담긴 교리를 따르고 있다. 대승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처음부터 부처로 보고,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바세계에 출현한 존재로 여기고 있으나 남방불교는 석가모니가 처음에는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대승불교는 자신의 성불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의 성불을 기원하나 남방불교는 개개인의 성불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 "불상에 절하고 음식차려 제사지내는 건 교리에 어긋나"

– 우리나라 절들의 어떤 점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가.

"예를 들면 부처님상(불상)을 모셔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경을 읽고 하는데 그것은 수행적으로 의미가 없다. 불상이 부처님은 아니지 않은가. 그저 쇳덩어리로 만든 우상일 뿐이다. 부처님 이름을 붙인 불상은 그나마 이해가 간다고 쳐도 다른 보살상들을 여럿 모시는 것은 근본불교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또 절에 산신각이나 칠성각을 두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런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그에게 절 생활이 편했을 리가 없다. 출가 1년 후쯤부터 그는 목탁을 안치고 염불도 안 외우는 대신 청소나 심부름 같은 일을 도맡아 했다고 한다. 그것이 다른 스님들에게 미안하기도 했다. 그가 이 절 저 절 다니며 수행해야 했던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었다.

– 지금까지 주지 한번 안 해보고 오로지 수행에만 매달려 왔는데, 수행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부처님이 그랬던 것처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가 하고 있는 수행법은 남방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 좌선(坐禪)과 행선(行禪)을 통해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는 수행법이다.

### 하루 두끼만 식사... 외롭고 힘든 '구도의 길' 43년째

허정 스님은 출가 이후 지금까지 하루에 두 끼(아침과 점심)만 먹고 있다. 저녁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오후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는 남방불교의 계율에 따른 것이다.

그의 하루 일과는 빡빡하다. 대입을 앞둔 고3생이나 고시 준비생의 생활도 이만큼 치열하지는 않을 것이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아침공양 때까지 참선과 예불을 한다. 오전

신월정사 종무실 앞에 선 허정 스님. 카메라 앞에 서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듯 했다.

6시 30분 아침식사 후에 또 참선을 하고 오전 11시30분에 점심 공양을 한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또 참선을 하고 저녁 6시에 예불을 올리고 저녁 9시면 잠자리에 든다. 출가 이후 지금까지 43년간 변함없이 계속해오고 있는 그의 일과다.

헤어지기 전 그에게 "지금 행복한가"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다.

"과거 어떤 스님이 나에게 똑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나는 절대로 불행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지금도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올해 세수 74살인 허정 스님은 "요즘 주위에서 나를 '노스님'이라고 부른다"며 "그 소리가 별로 달갑지 않다"며 웃었다. 매일 몸을 씻듯 치열한 수행으로 마음 속 탐심과 욕망의 때를 벗겨내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맑고 천진무구한 미소였다. <김차웅(19회)>

신월정사는 어떤 곳?

## 일반 불자는 받지 않는 명상 수행처

### 주지, 원로스님, 종무실장이 모두 '용마'

입구 쪽에서 바라본 신월정사 전경.

허정 스님이 현재 머물고 있는 신월정사(경남 하동군 고진면 신월리 718-9)는 지난해 5월에 개원한 남방계통의 절이다. 지리산 줄기인 정암봉 산자락에 위치한 신월정사는 대법당, 공양간, 종무소건물과 5채의 요사채로 돼 있다.

주지, 승가회 의장, 종무실장이 모두 경남고 출신들이어서 '용마정사'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절이다.

주지인 자공 스님(속명 박종규, 22회)은 서울공대 섬유학과를 졸업, 섬유업계에서 사업을 크게 하다가 1998년부터 불교수행에 뜻을 두고 수행하기 시작, 마침내 2006년에는 미얀마로 가서 비구계를 받고 출가승려가 됐다. 우리나라에 부처님시대의 수행법을 널리 보급해 우리나라 불교를 새롭게 세우는데 보탬이 되겠다는 원을 세워 사단법인 '붓다와 함께'를 설립, 3년여의 공사 끝에 신월정사를 완공했다.

이 절의 승가회 의장인 허정 스님(12회) 역시 오래 전부터 초기불교(남방불교)의 경전인 아함경에 심취, 수행해왔기에 자공 스님과 뜻이 맞아 이 절에 원로스님으로 머물고 있다.

종무실장을 맡고 있는 박석현 동문(경남중 18회)은 재가불자로 7, 8년 전부터 수행해오다가 이 절의 살림을 맡고 있다. 신월정사는 남방불교 수행법에 따라 수행하는 출가스님들이나 재가 수행자들을 위한 명상수행처다. 따라서 일반 불자들은 받지 않는다. 대신 10년 이상의 수행 경력을 가진 출가스님들과 재가 수행자들만 받는다.

신월정사는 수행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머물며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원자들이 내는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뜻 있는 사람들의 후원회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전화 : 055) 883-4840 / 홈페이지: http://cafe.daum.net/shinwolmonastery>

다시 보는 부산 ⑦ / 해운대 1

# 어릴 적 추억 떠올리며 걷는 백사장엔 갈매기들이...

글/사진 김형윤(18회, 김형윤편집회사 대표)

나라 안에서 제일 유명한 해수욕장 해운대. 그러나 나는 이 바다에 한 번도 몸을 담근 적이 없다. 일찍부터 송도해수욕장에 다녔고, 그 유서 깊은 해수욕장이 물이 더럽다고 해서 폐쇄된 다음에는 다대포나 송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1980년대를 지나며 경제 개발의 영향으로 나라 안에 여행 바람이 불기 시작한 뒤로 부산 사람들은 여름 한철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타향 사람들한테 아예 내준 셈으로 쳤다. 그 복잡한 데를 찾아가 왜 사서 고생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 타향사람들에게 내주고 외면해온 해운대... 이안류에 호기심

요즘 나는 지금껏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다. 해운대 바다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는 데에는 이안류라는 것에 새삼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파도가 해안에 부딪쳤다가 뒤돌아 바다로 물러갈 때 바닥에 이랑이 있으면 빠른 물흐름이 생긴다. 이것이 이안류다. 이랑이 깊고 길수록 물흐름의 힘이 더 거세어진다. 물속에서 놀던 사람들이 자칫 용궁까지 끌려갈 판이다.

겉보기에는 한없이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해운대 해안에서는 해마다 100명 이상이 죽음의 위협을 맞이한다. 이안류라는 불길한 물길에 휩쓸리기 때문이다. 2008년에 105명이, 2009년에는 150명이 허우적거리다가 구제되었다.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전에는 사망자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해운대구 관리들은 구조대의 대처 능력과 장비가 이제는 몰라보게 향상되었다고 자랑한다.

나는 이안류에 휩쓸렸을 때 정신만 차리면 파도에 실려 두등실 떠가는 재미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한다. 물길 따라 웬만큼 흘러나갔다가 흐름이 잦아들었을 때 헤엄쳐서 해안으로 돌아가면 되지 싶다. 만약 힘이 부치면 부산시가 바다 가운데 대기시켜 놓은, 잘 훈련된 구조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60년대 초 미군들이 철조망 치고 백사장 절반 차지

내가 해운대 바다를 처음 본 것은 열다섯 살 무렵, 그러니까 1960년대 초반의 일이었다. 여름은 아니고 늦가을쯤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를 따라갔었다. 철 지난 바닷가 넓은 모래밭은 휑했고, 그 한가운데를 마치 삼팔선처럼 철조망이 가로지르고 있어 더 쓸쓸한 느낌을 주었다.

그 철조망을 기준으로 동쪽 사장은 미군 전용이고, 서쪽은 한국인 전용이라고 했다. 지금은 그 철조망의 흔적 같은 건 아무 데도 없다. 1970년대에 사라졌다. 한국 사회의 풍경은 그 시점을 경계로 많은 것들이 변했다. 해운대 백사장의 규모도 달라졌다. 그때는 지금 것보다 더 넓었고, 그래서 훨씬 더 휑했다. 기록에 따르면, 1947년에 폭 70미터, 넓이 8만9천 평방미터였다. 지금은 폭도 넓이도 그 절반 정도로 줄어 있다.

백사장을 처음 보는 사람은 바다의 파도가 해안으로 모래를 밀어올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다를 향해 흐르는 강이 모래를 하류로 실어와서 해안을 풍성하게 만든다. 1970년대 이후 활발해진 도시화의 영향으로 동쪽의 장산에서 시작해서 수영강으로 흘러드는 춘천천이 이곳으로 모래를 운반하는 과업을 중단했다. 해운대구는 1990년부터 백사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한 해 2천800 입방미터의 모래를 실어다 부린다. 그러나 파도는 그보다 배 가까운 5천 입방미터를 가져가버린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해운대 백사장은 여름이면 어김없이 인간들로 가득 찬다. 내가 지난 여름 이곳을 찾았을 때 휴가 나온 미군들이 많이 보였다. 그들은 저들 선배들의 무대였던 동쪽 백사장에 몰려서 뒹굴고 있었다. 그래서 삼사십년 전 옛 풍경이 떠올랐다. 사라진 철조망과 함께.

### 새우깡에 익숙해진 갈매기들로 수선스런 백사장

겨울 아침, 해운대 백사장에 갈매기들이 무리 지어 조용히 앉아 있다. 환한 햇살 밑에, 길이 1.5킬로미터의 넓은 모랫벌을 가득 채운 갈매기들의 풍경은 좀 특별해 보인다. 먹을거리를 찾아 바다 위를 날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무슨 명상이라도 하는 것일까? 그러나 이들의 묵언 수행은 오래 가지 못한다.

방해꾼들이 바닷가로 다가온다. 겨울이라 할지라도 이 이름난 관광지의 해안은 비교적 이른 시간부터 수선스러워진다. 연인끼리, 친구끼리, 가족끼리 어울려서 찾아온 그들은 과자 봉지를 들고 수행승들 속으로 들어간다. 갑자기 갈매기들의 비상이 시작된다. 시끄럽고 어지럽다.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경고판이 서 있지만 누구도 그것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 이 눈동자가 초롱초롱한 생물들도 인간들이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갈매기들은 공중을 휘젓고 춤추며 먹이를 받아먹는다. 그들의 요란한 잔치판 아래로 지나가는 행인이 있다면 똥 폭탄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어깨를 움츠린 채 급히 걸어야 한다.

가까운 광안리 바닷가나 멀리 강화도 바닷가에도 이처럼 인간과 깊이 교감하는 갈매기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몸집이 크고 날씬하며 때깔도 곱다. 그동안 생산된 새우깡의 절반은 이 녀석들이 먹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아마 그들과 달리 한적한 해안에서 사는 것들은 부자동네 갈매기들의 행운을 부러워하며 지낼지도 모른다. 마치 인간 사회처럼. 그러나 해운대 갈매기들이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저들에게도 혹시 비만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해운대 갈매기들은 인간과 교류가 깊다. 사람이 던져주는 과자에 의지해 사는 데 익숙한 그들은 멀리 높게 날기를 열망하는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겨울의 해운대 해수욕장. 내가 처음 이곳을 찾은 열다섯 살, 그때는 여름만 빼고는 휑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지금은 사철 내내 사람들이 몰린다.

/禿筆雜記/

# 이름 없고 지위 없이 사는 즐거움

# 국회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공직후보자를 검증한다며 서슬 퍼렇게 나서는 걸 보고 있노라면 때로는 웃음이 나온다. 자기들은 하나같이 무결(無缺)한 성인군자인 척 후보자와 그의 처자식은 물론이고 사돈에 팔촌까지 들먹이며 이런저런 온갖 의혹들을 다 끄집어내 몰아세우고 망신을 주는 그들을 보면 역겨움이 앞선다. 그러는 너희들과 너희 가족들은 얼마나 깨끗한가라고 따지고 싶어지는 것이다.

#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온갖 망신을 다 당하고 있는 공직후보자들도 보기에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무슨 영화(榮華)를 보겠다고 저러고 앉았느냐 싶은 것이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면 당장 "여보슈, 의원 나리들! 앞으로 내가 일을 잘할지 못할지 능력여부를 따진다면 얼마든지 좋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지난 일을 시시콜콜 따지며 망신을 준다면 나는 그런 자리는 사양하겠소"라고 일갈하고 벌떡 일어나 나오고 말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공직후보자는 지금껏 단 한사람도 못 봤다.

# 굳이 그런 공직을 맡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고 이미 어느 정도 이름도 날린 사람들이 그런 망신과 수모를 기꺼이 당하고 있는 걸 보면 역시 벼슬이 좋고 출세가 좋기는 좋은 모양이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출세하면 더 욕심을 부리지 않을 줄을 알아야 한다. 물러설 때를 아는 게 중요하다. 장자(莊子)는 '공을 이룬 자는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실패하고 이름을 이룬 자는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욕을 당한다' 고 했다.

# 열자(列子)는 '이름을 떠난 사람은 근심이 없다' 고 했고, 장자도 '성인무명(聖人無名)' 이라고 했다. 성인은 이름이나 명예 따위를 찾지 않는다는 말이다. 많은 이들이 은퇴한 뒤에야 비로소 이름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마음 편한지를 깨닫게 된다.

# 중국 진(晉)나라의 장한(張翰)은 가을바람이 불자 문득 고향의 순채국과 농어회 생각이 나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누가 "어찌 후세의 이름을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하자 그는 "내 죽은 뒤의 이름이 생전의 한잔 술보다 못하네"라고 대답했다. 지위나 명성은 인생을 희생시켜 얻어지는 것이다. 이름 없고 지위 없이 사는 즐거움을 일찍 알수록 그만큼 남은 생을 속 편하게 즐기며 살 수 있다.

〈바우〉

## 九德골 카메라 산책

## 고교시절을 추억의 앨범에 담고 교문 밖으로...

제66회 졸업식이 열린 지난 2월 9일 오전 모교 교문 앞 풍경이다. 꽃다발을 파는 행상들이 교문 앞에 진을 치고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갖가지 색깔의 꽃다발을 진열해놓은 꽃행상들 틈에서 양손에 꽃다발을 들고 어설프게 "만 이천원"을 외치는 아르바이트 나온 여학생도 눈에 띄었다. 때 맞춰 총선후보 선거운동원들도 어깨띠를 두르고 나와 졸업식장으로 향하는 학부모들에게 선거용 명함을 건네주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이제 졸업식이 끝나면 후배들은 졸업장과 꽃다발을 들고 이 교문을 나설 것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고교시절을 각자 추억의 앨범에 담은 채 찬 바람 부는 교문 밖으로 나서는 것이다. 그들이 첫발을 내딛는 바깥세상은 그리 녹녹하지는 않을 것이다. '용마의 기상' 을 잃지 말고 용기와 지혜로 세상을 헤쳐 나가기를 기원해본다.

## "이 그림이 장차 돈이 될까요?"

### 김성언의 人文산책

조선 후기 화단(畵壇)의 최고 기인이라면 단연 최북(崔北)을 꼽는다. 그는 한쪽 눈이 먼 애꾸였는데, 어떤 자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기롱(譏弄)하자 화가 나서 제 눈을 스스로 찔렀다고 전한다.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만큼 자기 예술에 대한 자긍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금강산 구룡연에 유람 가서는 술에 만취해 "나 같은 천하 명인은 이런 천하 명산에서 죽어야 마땅하다!"고 외치며 몸을 던졌다가 혼비백산한 사람들이 건져준 덕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도 했다. 자기 맘에 쏙 드는 작품을 그렸는데도 돈을 적게 주면 미친 듯이 성을 내며 갈기갈기 찢어버렸고, 대충 그린 그림에 돈을 듬뿍 치르면 가가대소(呵呵大笑)하면서 그 자를 주먹으로 쥐어박고 돈은 되돌려주었다. 스스로 호를 호생자(毫生子), 즉 붓으로 먹고 사는 자라고 했는데 북으로 평양에서 남으로 동래에 이르기까지 명성이 온 나라에 가득해 가는 곳마다 비단필을 들고 그림을 구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한다.

술과 괴팍한 성미 탓에 적빈(赤貧)을 면치 못하던 최북은 열흘을 굶주린 끝에 겨우 그림 한 폭을 팔고는 그 돈으로 술을 퍼 마시고 만취해 귀가하다가 눈 내린 밤 한양 도성 한 귀퉁이에서 동사했다. 역시 그 시대의 불우한 시인이었던 진택 신광하(震澤 申光河)는 레퀴엠 '최북의 노래(崔北歌)' 를 지어 조선의 반 고호를 조상했으니 또한 진택 자신의 설움을 빗댄 것이기도 하다.

그대 보지 못했는가, 눈 속에 죽은 최북을
君不見崔北雪中死,
담비 갖옷에 백마 탄 자는 뉘 집 아들이뇨.
貂裘白馬誰家子.
으스대는 네놈들 죽는 거야 가련치도 않지만,
汝曹飛揚不憐死,
비천한 최북은 정말로 애달파.
北也卑微眞可哀.
열흘 동안 굶주리다 그림 한 폭 팔아서는
賣畵一幅十日飢,
대취해 밤중에 귀가하다 성 귀퉁이에 쓰러졌다네.
大醉夜歸臥城隅.
오호라, 최북이여,
嗚呼北也,
몸은 비록 얼어 죽었지만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으리.
身雖凍死名不滅.

요즈음 세태가 현금으로 뇌물을 줄라치면 마땅히 담을 상자가 없는데다, 받는 사람이 또 거북해 하기 때문에 대신 비싼 그림을 뇌물로 바치는 게 유행이라고 한다. 그러자면 간교한 그림 거간꾼에게 속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신흥 졸부와 복부인들은 화랑으로 또 백화점 평생교육센터로 미술을 공부하러 줄을 지어 몰려든다. 아마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 그림이 장차 돈이 될까요?"라는 질문일 게다.

애꾸눈 최북이 한국 서울에 환생한다면 미친 듯 춤을 추며 그 잘난 화랑과 백화점에 오물 세례를 퍼부을 것이 틀림없다.

〈김성언(24회, 동아대 국문과 교수, 한국고전문학)〉

BMW 동성모터스 해운대지점
Sales Consultant 김 태 련
Mobile : 010-8520-5482
E-mail : trkim@bmwdongsung.co.kr
※경남고등학교 55회

BMW 최초에서 최고를 경험하다.
BMW EfficientDynamics
Less emissions. More driving pleasure.

꽃 이야기 / 매화

# 그윽한 향기와 기개로 칭송받는 은둔자의 꽃

매화는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아왔다. 매화가 이처럼 사랑을 받아온 것은 지극히 차갑고 슬픈, 고상한 맛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겨울이 미처 지나지도 않은 시절에 어느 꽃보다 먼저 고고하게 꽃을 피워내고 또 그윽한 향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모진 추위를 이겨내고 언 땅에서 꽃을 피우는 매화나무에게서 옛 사람들은 불의에 굽하지 않는 기개와 지조 높은 선비정신을 보고 배운 것이다.

任慶彬선생은 <나무백과>에서 '매화나무는 돈 많은 사람과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나무'라고 평했다. 수긍이 가는 말이다. 매화는 세속을 떠나 은둔한 사람을 위한 나무다. 도시의 나무가 아니라 시골의 나무다. 또한 젊은이의 나무가 아니라 나이 지긋한 사람들의 나무다.

매화나무는 줄기가 옆으로 누워있고, 구불구불 뒤틀리고, 가지가 성기고, 야윈 것과 늙은 가지가 괴기하게 생긴 것을 더욱 진귀한 것으로 여긴다.

文一平은 <花下漫筆>에서 '사람들은 모란의 농염(濃艶)보다 매화의 냉염(冷艶)을 좋아하며, 모란의 이향(異香)보다 매화의 암향(暗香)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꽃들은 향기로 벌과 나비를 유혹한다. 그러나 매화의 향기는 그런 교향(嬌香)과는 거리가 멀다. 벌과 나비가 없는 동절기에 꽃을 피워 향기를 내뿜기 때문이다. 매화의 이런 고고한 정신을 두고 '매화는 가난하여도 일생동안 그 향기를 돈과 바꾸지 않는다(梅花一生寒不賣香)'는 칭송이 나왔다.

오래된 동양화에는 심매도(尋梅圖) 또는 탐매도(探梅圖)라는 화제(畵題)가 붙어있는 그림들이 있다. 아직 눈이 녹지도 않은 이른 봄, 한 선비가 처음으로 꽃을 피운 매화나무를 찾아 조랑말을 타고 눈 덮인 산길을 나선다. 어디선가 은근히 풍겨오는 매화의 암향(暗香)이 길잡이다. 선비는 조랑말 위에서 암향을 맡기 위해 코를 벌렁거리고 그 뒤로 술항아리와 술을 데울 풍로와 작은 명석을 말아 든 어린 하인이 뒤따른다..... 이 보다 더 멋진 풍류가 또 있을까 싶다.

요컨대 매화의 세 가지 덕목인 냉염(冷艶), 암향(暗香), 지조(志操)에 누구든 마음을 뺏기게 된다.

부슬비 속에 돌아갈 길은 아득한데 (細雨迷歸路)
노새타고 가는 십리 길 바람마저 불어오네 (騎驢十里風)
들매화가 여기저기 피었는데 (野梅隨處發)
그윽한 향기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네 (魂斷暗香中)
<우음(偶吟)/李後白>

한 폭의 그림 같은 정경이다. 이 시를 읽는 것만으로도 벌써 매화의 암향이 몸을 감싸는 느낌이다.

지금 남녘에는 매화가 한창이다. 옛 사람의 풍류를 흉내내어 탐매길에 나설만 하지 않은가. 요즘은 야매(野梅)가 보기 어려우니 가까운 매실농원이나 매화가 있는 절집을 찾는 것이 좋겠다. **<김차웅(19회)>**

**매화는 아주 하얀 색의 백매에서 아주 붉은 홍매에 이르기 까지 색깔이 다양하다.**

**18세기 전반 조선의 대표적인 선비화가 심사정(沈師正, 1707~1769)이 60세 때인 1766년에 그린 심매도(부분).**

시 산책

## 소주 한 병이 공짜

임 희 구

막 금주를 결심하고 나섰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감자탕 드시면 소주 한 병 공짜란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삶이 이렇게 난감해도 되는 것인가
날은 또 왜 이리 꾸물거리는가
막 피어나려는 싹수를
이렇게 싹둑 베어내도 되는 것인가
짧은 순간 만상이 교차한다
술을 끊으면 술과 함께 멍달아
끊어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 한둘이 어디 그냥 한둘인가
세상에 술을 공짜로 준다는데
모질게 끊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있는가
불혹의 뚝심이 이리도 무거워서야
나는 얕고 얕아서 금방 무너질 것이란 걸
저 감자탕집이 이 세상이
훤히 날 꿰뚫게 보여줘야 한다
가자, 호락호락하게

**임희구 시인** = 1965년 서울 출생.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방송대 국문과 졸업.
〈생각과느낌〉신인상 수상. 전태일 문학상 수상.
시집 〈걸레와 찬밥〉 〈소주 한 병이 공짜〉등.


## 집을 떠나있는 자녀들에게 '동창회보'를 보냅시다

아빠의 모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주는 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구독신청 안내**

추가 구독료(년 3만원)를 동문님의 이름으로 먼저 송금해주시고
회보를 보낼 자녀들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본부동창회 사무국** ☎ 051)245-7551~3

용마 에쎄이

# '카수미 글라스'가 무슨 뜻이고?

정태을 (19회, 대덕트레이드 대표)

30여년 전 약 1년6개월 정도 대만 타이페이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했을 때의 일이다.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현지의 심한 더위에 적응하는 것과 중국어를 익히는 것이었다. 한자를 중국어로 읽어내는 것과 생전 처음 보는 희한한 한자를 익히는 것이 괴로웠으나 한편으로는 한자를 필담으로 쓰면 중국발을 몰라도 바로 바로 통하는 게 정말 신기했다.

당시 대만은 공식적으로는 해외 여행자들이 일본책 등 일본 출판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도록 공항 통관 때 규제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꺼풀을 벗겨서 안을 들여다보면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구석구석마다 일본의 영향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었다. 청일전쟁 후 1945년까지 50년 동안 일본 통치를 받았으니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일본 식민지시대에 교육받은 50세 전후 또는 그 이상의 대만사람들은 집에서는 물론 식당 등지에서도 거리낌 없이 일본어로 얘기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곳 생활도 10개월 정도 지났을 쯤 하루는 H건설의 타이페이사무소의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S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당시 H건설에서는 중동에서의 건축, 토목공사에 쓰이는 각종 자재를 대만에서 대량 구매하여 중동으로 선적해 보내고 있었다.

"정형,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등 관련 서류에서 'kasumi glass'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kasumi가 무슨 뜻인지 알면 좀 가르쳐 주십시요. 유리의 한 종류인 것은 알겠는데 영영, 영한, 중국어 사전 등 여러 사전을 뒤져보아도 kasumi 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으니…."

나도 kasumi 라는 단어가 그렇게 귀에 익은 단어도 아니고 얼른 생각이 나질 않아 S형에게 전화를 끊지말고 기다리게 하고는 일본말에도 능통한 나이 지긋한 대만의 현지 직원에게 혹시 kasumi 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 현지직원이 뭐라고 말로 설명하려다가 멈추고 메모지에 '하(霞)'라는 한자를 적어서 건네주면서 안개를 뜻하는 '霞'의 일본 발음이 kasumi 라는 것을 친절하게 가르쳐주었다. kasumi glass 라는 것이 우리말로 젖빛유리였던 것이다. kasumi에 대한 수수께끼가 간단히 풀린 셈이었다.

그 메모를 받고 바로 S형에게 "안개 하(霞)를 일본 말로 kasumi 라고 합니다."라고 가르쳐 주었다. 물론 그날 저녁 우리 사무소의 그 현지직원과 함께 H건설의 S형으로부터 술과 밥을 잘 대접받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때 그 현지직원이 말로 길게 설명하려는 것을 그만두고 바로 안개 하(霞)라는 단어를 한자로 써서 건네준 것은 내가 중국말은 잘 하지 못해도 한자는 알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 메모지에 적힌 한자 글자가 아무런 장애물 없이 순식간에 국경을 뛰어 넘어 서로 뜻이 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이 한자를 공통적으로 배워온 나라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때 나는 표의문자(表意文字)인 한자의 위력을 새삼 실감했다.

論 評

# 모교발전 로드맵 제시할 때 됐다

모교발전기금모금 실적이 목표액의 절반을 넘으면서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재경동창회의 모금실적은 56억여원(1월 20일 현재)이고 분부동창회는 8억 7천여만원(지난해 말 기준)이다. 모금 초기에 동문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수직상승세를 보였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완만한 상승세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목표액 100억 달성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처럼 모금실적이 주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나 가장 큰 이유는 보다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든 많든 실제 모금에 참여한 동문들의 숫자는 전체 동문 숫자(3만여명)를 감안하면 턱없이 적다. 만약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보다 많은 동문들이 모금에 참여한다면 100억원 목표액달성은 금방 이뤄질 것이다.

여지껏 모금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동문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교발전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동문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모금실적이 목표액의 절반을 넘어선 지금이 그 적기다. 단순히 '경남중고 르네상스'니 '과거의 영광 재현'이니 하는 추상적인 목표제시나 구호만으로는 더 많은 동문들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100억원의 모교발전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여 모교를 어느 시점에 어떤 모습으로 바꿔놓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모교발전 로드맵'을 제시할 때가 됐다. 경발위는 지난해부터 우수학생 유치, 기숙학당운영지원 등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것이지 전체적인 모교발전 프로젝트에 따른 기금집행은 아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동원, 실천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을 만들어 그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

# 동창회보를 아끼는 마음

노기태 동문(20회)이 '동창회보 후원금'으로 5백만원을 보내왔다. 동창회보는 동문들이 내는 구독료(연 3만원)로 제작돼 국내외의 동문들에게 일일이 우편발송을 하고 있는데 항상 제작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사정을 알고 동창회보 후원금을 보내준 것이다. 동창회보 제작진으로서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다.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동창회보 제작진의 애로를 알아준다는 사실에 용기백배해지는 것이다.

만약 동창회보가 없다면 우리 동창회와 동문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본다면 누구나 동창회보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6만명에 달하는 우리 동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소통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동창회보가 맡고 있는 것이다.

우리 동창회보 편집진은 이번 '동창회보 후원금' 답지를 계기로 더 알찬 동창회보를 만들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동창회보의 주인은 독자인 동문 여러분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엄정한 자세로 동창회보 제작에 임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 편집실 메모

▶ 미국 LA에 거주하는 조동준 동문(11회)이 미국 대륙횡단 자동차여행기를 보내왔다. 사실 이 기고문은 지난해 말에 도착했으나 이미 그 때는 마감시간이 끝난 때였기에 부득이 게재가 늦어졌다. 70줄에 들어선 세 분의 은퇴한 11회 동문들이 21일간 차를 몰고 미국대륙을 횡단하며 우정을 나눴다니 대단하고 아름다운 여행이 아닐 수 없다. 많은 동문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줄 것으로 본다.,

▶ 신월정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허정 동문(12회)의 이야기도 관심을 끌만 하다. 종교와 종교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읽어주었으면 한다. 보통 인간들이 갖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랜 세월 고행을 계속하고 있는 허 동문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다보게 해줄 것이다.

▶ 우리 동문들 중에는 기인이 적지 않다. 평생 산에 미쳐온 오기현 동문(20회), 마라톤 풀코스를 125번이나 완주한 내과의사 이철의 동문(21회)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 두 동문의 삶은 젊은 동문이나 나이든 동문이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 얼마 전 한 동문은 "동창회보를 읽어보면 내가 정말 명문고를 나왔구나 하는 자긍심을 갖게 된다"라고 말했다. 동창회보를 제작하면서 만나는 동문들에게서 역시 용마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뭔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곤 한다. 동창회보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동문들을 발굴해 소개할 방침이다.

▶ 2월이 거의 다 가도록 기세를 꺾지 않았던 추위도 어느덧 점차 풀리고 있다. 봄이다. 누가 뭐래도 봄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온 것이다. 움추렸던 어깨를 펴고 심호흡으로 이 봄의 기운을 들이 마실 때다.

## 투고, 제보 받습니다

경남중고 동창회보는
동문 여러분의 의견을 신문제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고와 제보는 연락처를 기재해
아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경남중고 동창회보 편집실**
팩스 051)245-7550
☎ 051)245-7551~3
E-메일 yongmanews@gmail.com

# KJ 김&정 해운대병원

## 척추관절통증 최선을 다하는 병원

원장 **김법영**(33회), **정재익**, **우수영**, **이용균**

### 진료과목

- 신경외과 / 정형외과
- 통증의학과 / 재활의학과
- 척추 클리닉(허리, 목 디스크)
- 두통 클리닉
- 관절염 클리닉
- 노인병 클리닉
- 통증 클리닉
- 뇌졸중 클리닉
  (뇌출혈, 뇌경색, 고혈압, 당뇨)

## 척추질환의 획기적인 비수술적 치료

## FIMS (컴퓨터영상신경치료법)

###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일요일 : 휴진

입원실

진료실 입구

CT촬영실

입원실 입구 / 안내

## CT(컴퓨터단층촬영) / 근전도검사 / 골다공증검사 / 초음파검사
## 고주파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자기장치료 / 물리치료

**※김&정 해운대병원** (해운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61-1 울트라타워 8층 (지하철 2호선 장산역 10번 출구 방향)
Tel : 051) **702-7017** (입원실, 수술실)

**※김&정 신경외과** (양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336-1 (지하철 양정역 4번 출구)
Tel : 051) **862-5454**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2시)